

## 左派 「進歩의 탈」 벗겨라

大韓言論 '09 主題  
언론과 國益

### 時代 逆行 세력 제대로 알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본명은 물론 별명도 있다. 특히 별명의 경우에는 내가 불러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 성격, 습관 등을 보면서 일방적으로 붙인다. 별명 중에는 나의 단처(短處)를 꼬집고 부각시키는 것들이 많아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이런 문제는 사적인 것이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이름으로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의 장이라면 다르다.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지향하는 ‘공론의 장’에서 잘못된 이름이나 거품성 용어들이 범람하는 것은 단연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 교언영색(巧言令色)의 이미지로 인하여 담론 자체를 오도하는가 하면,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거나 심각하기 짝이 없는 혼란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바른 이름붙이기의 중요성, 즉 정명(正名)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워야 한다’는 것

이 정명의 핵심이라면,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자식다울 때 자식이 된다. 자식이 ‘원수’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자식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한국의 좌파가 ‘진보’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진보답게’ 행동했는가. 오히려 그 이름에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고 이름만 고쳐려고 하는 것은 작명가를 찾아가 이름만 고쳐 출세해보겠다는 필부의 속물적 근성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일찍이 오컴(William Occam)이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이라고 불렀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좌파세력은 자신들을 ‘진보’로 불러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해왔다. ‘좌파’라는 말을 쓰면 “또 색깔론이 등장했다”고 난리다. 좌파쪽에서 노정하는 그런 불만은 근거가 없다. 진보는 보수에 비해 긍정적인 함의를 갖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 말을 좌파가 독점해야

### 특별기고



박 효 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좌파를 적어도 일률적으로 ‘진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특히 80년대의 NL이나 PD 범주에 구태의연하게 머무르고 있는 ‘친북좌파’나 ‘종북좌파’의 경우처럼 진보하지 않는 세력 혹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세계사적 흐름

람들은 좌파중에도 ‘극좌’의 행태인데, 이런 행태를 두고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좌파’로 불리는 현실을 타하기 전에 자신의 행태를 고치는 일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를 유명론의 범주로 격하시킨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그들 자신의 탓이다.

한국 좌파의 문제는 지독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 인지부조화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혐오를 드러낸다. 자신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미국과의 FTA 등 미국적인 모든 것이 증오의 대상이다. 자신의 자녀가 전교조 교사 밑에서 지도받는 것을 꺼리면서도 전교조에 대한 지지는 강렬하다. 북한에 가서 살기는 싫어하면서도 ‘친북주의자’나 ‘종북주의자’로 처신하고 있다. 이들 행태는 자기 식당의 불량식품을 손님들에게 팔면서 자신의 식구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는 양심불량의 식당주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일련의 ‘인지부조화’

현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현저한 것은 대한민국의 좌파로 살면서 그것을 가능케한 대한민

## 주장-행동 따로 「認知 不調和」 극심

하는 것인가. 프랑스 혁명의회의 역사를 보면 진보·보수보다 좌파·우파가 정확한 말이고 또 중립적인 말이다. 좌파·우파의 개념과 진보·보수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확연한 사례는 1990년대의 소련과 동구의 변화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가 붕괴되었을 때,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좌파와 우파의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소련사회에서 ‘보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공산당과 그 추종세력을 일컬었고, 공산주의 체제를 혁파하려는 민주세력은 ‘진보’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소중히 생각한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 등 인권이나 문명사적 가치에 둔감한 좌파 혹은 문(文)·사(史)·철(哲)의 기본적 교양을 갖지 못한 구태좌파를 ‘진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마치 ‘검은 백조’라는 말처럼 모순적 표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에 참패했으면서도 반성문 하나 쓰지 않고 버티며 폭력시위를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투표에서 잃은 것을 길거리에서 줍겠다고 하는 사

국의 성취는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와 인권, 시장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이기에 좌파로서 권력도 10년 동안 잡는 등 왕족처럼 살아온 것이 아닌가. 북한이라면,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아닌 바에야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런데도 2008년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사코 비판적이었고 냉소적이었다. 권력의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면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기초가 된 5·10선거를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全教組 「참교육」은 「민중혁명」 위한 것

大韓言論 '09 主題  
언론과 國益

時代 逆行 세력 제대로 알자

지난 4·8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 때문에 전교조에 반대하는 애국진영에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하다.

본인은 김 당선자가 전교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후, 자신의 당선에 대하여 “현정부가 강요하는 특권교육, 경쟁교육을 경기도민의 손으로 엄중하게 심판”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등의 포부를 밝힌 것으로 보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애국진영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는 전교조의 교육정책 노선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제는 김 당선자의 소인이 외형적으로만 전교조

의 교육정책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전교조가 표방하는 이른바 ‘참교육’의 실체와 전교조 결성의 실제 목적까지 알면서도 내면적으로까지 그 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만일 김 당선자가 전교조의 이적(利敵)노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평준화 정책 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외형적인 교

육정책에 현혹되어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면, 김 당선자의 당선은 도리어 애국진영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 평준화 교육이 他市·道, 특히 서울특별시의 수월성 교육과 상호 경쟁하고, 국민들은 그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수월성 교육의 성과가 더 좋

## 특별기고



고 영 주

·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  
· 전 대검 감찰부장 ·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것이라면 애국진영은 물론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서 특단의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란 좌익세력들이 흔히 활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서 일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존치없는 교육, 인성교육” 등 건전한 내용이 아니라,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교육, 즉 참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즉 공산주의의 변종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써 이적성(利敵性)이 인정된 바 있다.

또 애초에 좌파 교사들이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목적도, “민중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동력이 부족한 대학생 의식화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였고, 학교평준화 주장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입시나 학업에 신경쓰지 않고 혁명투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初中高生 의식화로 투쟁 적극 참여 겨냥

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좌파가 우파에게 준 선물”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김상곤 당선자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애국 진영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당선자가 전교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는 정책을 펴는

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음습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민중 계급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 계급이 될 학생들에게 자본가 계급을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짜교육이고, 따라서 민중 계급이 주인이 되는 나라 즉 민중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경기도 학부모들과 애국진영에서는 김 당선자의 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하다고 방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반미 좌경의식화 교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

## 法治 무시 大衆 동원 힘 과시 이젠 그만둬야

1면에서 이어집니다.

차라리 그런 정부하에서 대통령을 하지 않았다면 좌파의 절개라도 보존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흔히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헬멧을 쓰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니다. 위험한 것과 일하고 있는 것 사이에 인지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일터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헬멧을 쓰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이처럼 좌파도 건국이 어떤 것인지, 북한이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면서도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그 동안 좌파로서 투쟁해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까봐 건국무익론, 반미주의, 친북주의, 종북주의를 ‘근본주의자’처럼 고집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좌파를 ‘진보’로

부르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한 표현이라고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진보나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우파’도 ‘진보’가 될 수 있고 ‘좌파’도 ‘보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좌파를 ‘진보’로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진보’라는 말은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그 좋은 말을 좌파가 독점할 수는 없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진보는 분명보다는 별명과 같은 것이다. 진보라고 불리기를 바란다면 ‘건강한 좌파’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행동은 ‘퇴보’처럼 하면서 ‘진보’로 불리지만을 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선 북한 인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문명국의 시민들이 북한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하여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1인승배에 대하여 치를 떨고 있고 머리를 흔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채 오히려 남한의 인권이 잘못되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를 삼으니,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동안 ‘반전 반핵’을 외치면서 평화주의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북한이 핵을 갖고 난 다음부터 교묘하게 ‘반핵’을 빠뜨리고 ‘반전평화운동’으로 바꾼 이상한 ‘친북주의자’와 ‘종북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좌파가 ‘진보’가 되려면 변해야 한다. ‘진보연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보하지 않은 좌파들끼리 연대하여 법치를 무시하고 대중동원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전에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2008년 출범한지 수개월도 안된 정권초기가 아수라장이 된 데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크지만, 대선에서 참패하고도 권력 금단현상을 극복하지 못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대선불복종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실패학’을 쓰지 못한 좌파의 잘못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물론 좌파를 ‘진보’로 세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해서는 좌파의 미래가 없다.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에서 ‘인지부조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신이 불려지기를 원했던 ‘진보’라는 말에 거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진정한 진보’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진솔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건강성이 담보되는 좌파의 길이 열릴 것이다. [주]



# 文化界「左派 대못」 뿌리 뽑아야 한다

大韓言論 '09 主題  
언론과 國益

時代 逆行 세력 제대로 알자

황지우 총장, 심광현 영상원 교수, 진중권 객원교수 등 한국종합예술학교(이하 한예종) 인사들이 주도하여 인문과 예술과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30억원대 통섭교육사업의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예종 자체의 개혁이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부실 의혹을 넘어 애초에 아무런 실기적 전문성도 없는 진보좌파 운동가 출신들이 한예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황지우 총장은 1997년 한예종 연극과 극작과 교수로 취임하지만, 시인 황 총장이 처음으로 희곡을 쓴 것은 1998년도에 80년대 광주문제를 다룬 '오월의 신부'였다. 기록상으로는 희곡작가로 데뷔하기도 전에 희곡 관련 교수로 임명된 것이다. 또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계는 꽃의 연꽃' 등등의 시인 황지우라면 문학계에서 다들 그 명성을 인정하지만, '101번지의 3마일' '물질적 남자' 등등의 희곡은 연극계에서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는 객관적 평가는 없다. 공연예술 전문매체의 한 대표는 "연극계에서 황지우 총장은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영상원의 심광현 교수와 전통예술원의 이동연 교수는 황지우 총장의 경우보다 더 과격적이다. 심광현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1995년까지 주로 미술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1996년도에 한예

종 영상원 교수로 채용되었다. 한예종 홈페이지에 게재된 심광현 교수의 프로필에는 2000년 '한국영화사 연구의 새 차원 -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는 유령 같은 역공간'이라는 논문이 최초의 영화 관련 학문적 성과로 나온다. 황지우 총장과 마찬가지로 영화 관련 활동을 하기 한참 전에 영화 전문 교

## 특별기고



변희재

·실크로드 CEO 포럼 대표

1학기에 강의하나 하고 연봉 4,000만원의 객원교수로 채용된 진중권의 경우도 특혜시비에 걸려있다. 한예종의 학칙상 객원교수는 '실기전문가 또는 특수경력의 소유자로서 학교 또는 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객원의 형태로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다. 진중권이 한예종에서 강의한 과목은 프랑스철학

출범 뒤 교체되기는 했지만 윤도현, 신해철 등은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MC를 장기간 동안 도맡아 왔다. 영화계 역시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이 주도하여 진보좌파 정당 지지를 이끌었으며, 그 이전에는 명계남, 문성근 등이 영화인들을 노사모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토록 전 영역에서 진보좌파 문화인사들이 문화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애초에 문화예술의 본질적 특성상 현실권력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러한 문화예술의 본질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은 이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켰고, 진보좌파 문화예술인들은 권력을 지향하며 비전문의 운동가들이 온갖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했다. 셋째, 정권을 잡은 이른바 보수우파 진영이 대북문제나 경제문제와 달리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진보좌파들의 권력 장악을 방지한 측면이 있다.

## 「한예종」左派운동가 출신들이 좌지우지 非전문가 축출로 문화정책의 새틀 짜야

수로 채용된 것이다.

전통예술원의 이동연 교수는 중앙대 영어영문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대중문화 관련 연구활동을 해왔다. 이런 그가 한국 전통예술을 교육하는 전통예술원에서 한국 예술학과 교수로 채용되었다. 이동연 교수의 신문칼럼 역시 한국전통예술에 관련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최근에는 '장자연 리스트' 'WBC 야구팀 병역특혜' '꽃보다 남자' 등 대중문화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사상의 지평'이다. 실기전문가가 아니며 독일유학 실패자 진중권이 현대사상을 강의하기 위한 어떠한 특수경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예종측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진보좌파들의 문화권력 장악은 비단 순수예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골적인 친노무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우먼 김미화는 진보좌파 노조의 지원으로 MBC 라디오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의 MC 자리를 유지했다. 현 정부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들 한다. 그러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문화예술은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만 하면 된다는 낡은 사고에 빠져있다. 이러한 틈새를 치고들어와 거의 모든 문화영역이 좌파 천국이 되어버렸다. 최소한 5:5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당 영역에 전문성이 없는 좌파인사들이 주역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면서, 새로운 문화정책담론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K]

## 大韓言論人會 대토론회 개최

제 1주제 = '대한민국 흔드는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2주제 = '한국 언론,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

5월 19일(화) 오후2시 프레스센터 19층



사회·문명호  
본회 부회장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기회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는 말과 행동으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맡은 현 정부는 출범 1년이 넘도록 법과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분명한 방향 설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언론인회는 2009년의 주제를 '언론과 국익(國益)'으로 정하고 본회 회보 '大韓言論'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그 역할을 배가해 나가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5월 19일(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① '대한민국 흔드는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② '한국의 언론,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대토론회에 본

회 회원들과 언론계, 사회단체 관계자, 대학생 등 일반인들의 많은 참석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주제별 내용과 발표자, 토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주제 = '대한민국 흔드는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장  
토론자 :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대표  
김철 본회 회우·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강사

◎ 제 2주제 = '한국 언론,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  
주제발표자 :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토론자 :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희조 본회 회우·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중부대 신방과 초빙교수  
사회 : 문명호 본회 부회장·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 대토론회 후 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1주제 발표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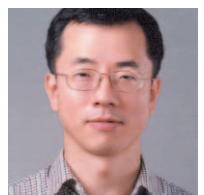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대표



김철  
본회 회우

제2주제 발표자



윤석민  
서울대 교수

토론자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희조  
본회 회우



# 北 「先軍外交」는 포괄적 협상용

1968년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이 일어 났을 때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노심초사하던 김일성은 군간부들과 연일 대책을 숙의했다. 미국에 대항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김일성이 뭔가 꾀꾀해 하자, 그 자리에 있던 김정일이 “수령님, 걱정마십시오. 지구를 깨뜨려 버리면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김일성은 “김정일 동지는 대답하고 배포가 크다”고 चु켜세웠다고 한다.

김정일의 선군외교는 이런 위험한 군사모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선군정치가 모든 부문에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라면 선군외교는 일단 전쟁상황을 조성한 뒤 상대방이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를 제의해 오면 그것을 받아 의제를 선점한 뒤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다. 회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파탄을 내고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며, 때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의제를 잘게 쪼개서 협상을 진행한다.

벼랑끝 전술과 맥을 같이 하는 이 방식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기존의 서방외교 협상 방식과는 판이하다.

1차 핵위기때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협상전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량과 실제 분석한 양의 ‘불일치’를 들어 특별사찰에 나서려 하자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해 아예 판을 뒤엎어버렸으며 내부적으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그 이후(1993년 3월) 3개월만에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협상과 파탄을 반복하다 1994년 10월에 이

른바 제네바 어그리먼트(agreement)에 합의했다. 내용은 북한이 현재와 미래의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200Mw 경수로를 지어주고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과거핵사찰 문제는 경수로 핵심부품이 들어갈 때까지로 미루었다.

당시 클린턴정부 일각에서는 곧 망할 북한체제에 양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 몰라도 한참 몰라던 것이다.

2차 핵위기는 보수적인 부시 행정부



도준호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명지대북한학과 초빙교수

의를 도출했다. 9·19합의의 초기 이행조치를 담은 2·13합의는 1차로 영변핵시설 폐쇄 봉인과 추방한 IAEA사찰요원 복귀, 2차로 핵불능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에너지 100만t을 지원하기로 했다.

2단계 핵불능화 조치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으나 이 단계에 하기로 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둘러싸고 미국은 ‘완전한 신고’는 검증 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검증을 요구했

로켓 발사가 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자, 6자회담 불참과 IAEA 및 미국의 사찰요원 추방, 핵시설 재가동을 천명했다. 남한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방침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예상된 반발이긴 하지만 그 속뜻은 출범 때부터 북한과 대화를 천명해온 오바마 정부와 포괄적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안전과 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지원을 얻어 내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 핵보유국 지위는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폐쇄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약속하고 이러한 것들을 얻어 내려할 것이다. 김정일은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관계정상화를 위해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 장관과 조명록 차수가 상호 교환방문하고 정상회담 직전까지 갔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 같은 민주당인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기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우선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6자회담을 제쳐 놓고 양자 회담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설령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의 의도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의 ‘핵게임’에서 북한이 일부 전술적 이득은 챙겼을지 모르지만 ‘깡패국가’라는 의미지로 국제 고립을 심화시켰으며 준전시상태 등 내부적 긴장감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사회는 황폐화되었다. 또 클린턴 정부와 달리 김정일을 알 만큼 아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를 것이다. [4]

## 군사 모험 주의로 체제안전-경제지원 겨냥 유리한 상황 조성 될 때까지 판깨며 기다려

가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부시 정부는 전임 정부의 합의내용이 못마땅했던 데다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한 후에야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몰아붙였다.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에 대해 북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정면 대결에 나섰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도 부시 대통령의 국내 인기가 떨어지고 이라크와 이란문제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협상국면으로 바뀌었다. 회담은 양자가 아닌 6자라는 다자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19합의에 이어 2·13합

의나 북한은 ‘검증’을 합의한 적이 없다며 불능화조치를 중단했다. 전형적인 판깨기 전술이다.

1, 2차 핵위기와 그에 따른 합의 내용을 보면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제네바 합의에서 현재와 미래핵의 포기를 약속했으나 비밀리에 핵을 계속 개발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으며, 2·13합의에선 핵불능화 조치를 약속했으나 그 다음 단계인 핵폐기 조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

이번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이 또다시 대결국면을 조성하고 나섰다. UN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의

## 신문사진 ‘인간애賞’ 시상식



수상자와 대한언론인회 회장단의 기념촬영.

대한언론인회가 신문 보도사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인간애상’ 시상식이 신문의 날인 4월 7일(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수상자와 수상자가족, 대한언론인회 회장단 등이 모인 가운데 거행됐다.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인간애상이 신문 보도사진의 모범이 되고 있고 특히 대상을 받은 ‘화상 입은 중국동포의 눈물’은 본회가 수상자로 선정한 뒤 각 언론상 사진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어 인간애상 수상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고 축하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조선일보 조인원 기자가, 우수상은 ‘조선일보의 함박웃음’으로 국민일보 이동희 기자, ‘누워서 꾸는 디자이너의 꿈’으로 한국일보 홍인기 기자와 ‘끝까지 놓지 않고...’의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또 조선일보 편집부 김연국 차장과 주영훈 기자가 편집상을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 수상자와 가족, 본회 회장단 등은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도 나눴다. [4]



# 北核보다 간접침략 더 무섭다

오늘 한국 안보상 가장 큰 위협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북한 핵이지만 그 보다 더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위협은 북한의 간접침략(間接侵略)이다. 간접침략이란 전면 남침과 같은 직접침략 이외의 침략을 총칭하는 셈인데, 이념전쟁은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조금 복합적인 정치심리전 형태도 있다. 모택동이 마르크시즘, 홍군(紅軍)과 함께 중국 통일(統一)의 3요소라고 한 '통일전선책략'의 '한반도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친북 동조세력을 심고 또 확대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한국사회를 적화(赤化)한다는 침략방식이니 한 마디로 마치 '암(癌)의 전이(轉移)'와도 비슷한 모양새다. 이른바 '벼랑끝 외교'와 같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못지 않은 긴장으로 압박하면서 정치적으로 승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이 간접침략의 범주에 들지 않을까 싶다. "공산권은 긴장을 무기로 잘 활용한다. 경계선에 긴장의 벽을 높이 쌓아 자유세계의 후퇴를 강요함으로써 일련의 승리를 얻어내고 있다"던 키신저의 분석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은 통상 이 모든 유형들을 함께 묶어 총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침략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직접 암세포를 투입하고, 그 암세포의 증식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동시에 이들을 활용하여 북한에 필요한 정치적 승리를 만들어 낸다는 식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이런 간접침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고 성과도 그만하면 대단했다. 특히 지난 10여년 우리의 햇볕정책 하에서 14조원에 달하는 이런 저런 지원을 얻어내 1994년 출범 초기에는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김정일 체제가 살아남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국기(國基)가 흔들린다"고 우려할 만큼 우리 사회내의 이념 갈등을 심화시켜 오히려 자유대한의 국가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성공의 기저에는 북한이 그 동안 심고 가꾸어 놓은 암세포의 대명사 쯤 될 우리 사회의 '친북좌익세력'이 있다. 김정일이가 "언젠가 광화문 네거리에 10만명은 집결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 만큼 그 세력자체도 크지만

바로 이들이 북한 간접침략의 최전선에서 성공적으로 침략적 활동을 해 온 것이다.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에는 "미국도 있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민족적 쾌거라고 찬양하면서 북한의 협박에는 "그것 보라"며 우리 정부더러 당장 백기를 들라고 다그치는 세력의 중심

## 특별기고



김희상

· (예)육군중장 · 정치학 박사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간접침략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정말로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 기회주의적 세력은 얼마나 늘고 또 극렬해지겠는가? 말도 안 되는 광우병 따위로도 국정이 마비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던 나라다.

그와 함께 국민적 안보의지를 다잡아야 한다. 무릇 이념갈등 같은 간접침략 형태의 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체제수호의 의지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안보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보적 소양(素養)과 지혜의 제고도 중요하다. 예컨대 그 동안 저들은 흔히 '평화'와 '민족' 같은 가슴 뭉클한 정서적 용어로 우리의 합리적 이성을 효과적으로 마비시켜 왔다. 물론 평화는 가장 소중한 범인류적 가치다. 그러나 무릇 빌붙고 회피해서 얻어지는 평화란 없는 법이고 그런 평화는 굴욕적이거나 노예적인 것에 불과한 법이다.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단호히 맞서야 지켜지는 것이 평화인 것이다. 이런 북한의 간접침략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국민적 안목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암 덩이 '친북좌익세력'을 정리하고 사회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보의지와 지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적 용기이다. 하기는 모름지기 희생이 전혀 없는 안보와 평화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 작은 희생을 두려워하면 내일 더 참혹하고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의 것이 되어 온 것이다. 1938년 뮌헨회담 당시 전쟁을 겁낸 英佛 양국의 국가적 비겁성은 불과 1년여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다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문을 열어 주게 된다.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때로는 더 할 수 없는 최악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참된 평화를 지키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려면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전략적 지혜와 국가적 용기를 행동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분명한 위협을 눈앞에 두고도 '평화'와 '민족'의 허울 속에 회피하려 드는 이런 비겁성 따위는 지금 당장 털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장차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북한의 저 참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될 것이다. [E]



북한이 공개한 로켓 발사 장면.(사진 = 연합뉴스)

## 우리 사회 이념갈등 「癌세포」유포 국민적 安保 지혜 · 용기 필요 한 때

에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성공을 돕고 우리 사회를 점차 중증 암환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간접침략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적 역량을 등에 업고 전개될 것이다. 사실 북한 핵은

미국의 핵우산이 아무리 넓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칫 자유대한의 미래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당장 올바른 법질서 확립부터 서둘러야 하지만

## 言論산업 전망 세미나

大韓言論人會 6월 4일 속초서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6월 4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서 언론 산업의 전

망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세미나는 '신문 산업 위기인가?'라

는 제 1 주제와, '경제 침체 속에서 광고를 살릴 길은?'이라는 제 2 주제로 나누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자와 토론을 갖는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6월 4일(목) 오전 10시에 버스 편으로 프레스센터 앞을 출발해 속초→한화콘도에 도착한 후 3시부터 6시까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6월 5일에는 통일전망대 등 동해안을 둘러보고 오후에 귀경한다.

이번 6월 행사는 세미나와 역사탐방을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본회는 오는 5월 15일부터 참석을 원하는 회우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참석 가능 인원은 90명이다. [E]



# 세 얼굴 지닌 盧武鉉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세 개의 얼굴이 있다. 권양숙씨 남편으로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 현 변호사로서의 노무현이다. 그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그에 상응한 얼굴을 내세워 현란한 화술과 함께 정면 돌파를 해왔다.

지금까지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잘 나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당당했던 남편으로서의 위풍도, 국가 최고통치자였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체면도 버리고 변호사로서의 ‘증거 제일주의’를 앞세우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기 보호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풍당당했던 자세에서 갑자기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 노 전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만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고, 그럴 거라고 믿었다. 그의 정치적 상표가 ‘도덕성’이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과 그의 기술들과는 다르리라고 믿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과 실망은 더 크다. 정치적이고 보결선거를 위한 겨냥한 전략적인 수사를 감안하더라도 박연차 돈에 노무현 일가가 춤을 춘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청와대 안에서 아내인 권양숙씨가 1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 남편인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대통령 보고 주었지 아내인 권양숙 개인에게 주었겠는가. 노 전 대통령의 아내 사랑은 유별났다고 한다. 한 마을에서 성장하면서 열애 끝에 결혼까지 했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장

인의 좌익 활동 경력에 대한 공세가 거칠어지자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라는 단도직입적인 말로 순간 공세를 침묵시키면서 정면 돌파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이 말 한마디로 전국 아내들의 감성을 휘어잡고 열세에서 승리의 고두보를 구축했다.

이런 남편이었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13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저의 집에서 박연차 회장 돈 받았다. 사과드린다”고 아내에게 넘겼다. 사실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차라리 노 전 대통령이 “그 돈



김 화

· 본보 논설위원  
· 데일리리뷰 고문

“선거법은 관권시대의 유물”이라고 되받았다. 2007년 6월 대선 이 가까워지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끔찍하다”고 말해 선관위로부터 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은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없는 위헌적 제도”라고 선거법을 매도했고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투자하겠느냐”고 선거법을 조롱하듯 선거개입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법은 설령 악법이라도 개정되거나 폐기되기 전까지는 지키는 게 국민의 도리다. 그런데도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현행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면 국민들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

는 전 대통령이라면 권좌에서 물러난 후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이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두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노무현 씨는 재임 시에도 그렇게 “그 놈의 헌법” 등 대한민국 법률을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놈의 법률을 빠져 나가려고 “증거” 운운하며 올인하고 있다. 얼마나 급했으면 돈 받은 것에 대해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듯 보였다”는 렉토링(수사)까지 언급했겠는가. 지금의 노무현 씨 모습은 ‘아내를 사랑한 남편’도 ‘국회 탄핵결의를 당하고도 당당했던 대통령’도 아닌 법의 구멍을 찾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젠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들에게 미안할 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처럼 대통령 복이 없는 국민들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은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것보다 빈민 구제나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 활동에 주력하는 분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퇴임대통령과 가족들은 대부분이 재직 시 엄청난 돈을 수취하고, 퇴임 이후에는 호화주택을 지어 기회만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지지자들을 위해 정치적인 발언이나 활동을 하려고 한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자가당착적인 사고다. 물론 국민의 그릇된 선택에 의한 인과응보이지만 대통령 자신들의 도덕적 반성과 철학적인 성찰이 우선해야 한다.

평범한 시민인 내가 노무현 씨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장난과 현학으로 국민을 상대로 쇼하지 말고 사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진실 앞에 서라는 것이다. 변호사 노무현보다 솔직한 시민이 더 아름답다. [필자]

## 남편-대통령-변호사... 현란한 話術 언제까지

내가 받아서 아내에게 줬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체면 지키려면 돈 좀 들 텐데 거기에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될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아내들의 ‘살아있는 전설’로는 남았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외면하고 선거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하다가 국회의 탄핵결의로 잠시 동안이지만 권좌에서 물러났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복귀했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의 입은 열려있었다. 2004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무원선거중립위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는가.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최고 권좌에서 물러난 노무현 씨는 이제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시민이다. 그런데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에 불편 없는 고액 연봉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의 경호와 비서관의 급료까지 국가로부터 받는다. 노무현 씨는 권력만 지니지 않았지 지금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호화신축 저택에서 품위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

## 5월 건강강좌 16일 개최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 조성완 박사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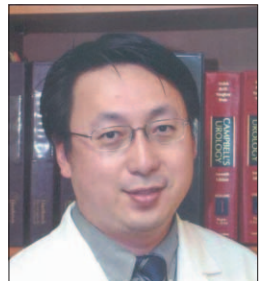
4월 건강포럼에서 회원들이 김경희 원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5월 건강포럼이 5월 16일(토) 오후 2시에 명동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 4층에서 열린다.

이번 건강포럼은 조성완 박사가 최근 노령자들에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과민성방광염과 전립선암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할 예정이다. 조 박사는 지난해 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립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질의도 받을 계획이다.

한편 4월 건강포럼은 우리 나라 최초로 개업한 비뇨기과 여성 의사인 김경희 코넬 여성전문 비뇨기과 원장이 ‘노년기 밤이 두려운 이유’를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원장은 부부간 노력만으로 자연스런 노년기 성생활이 가능하고 노년기 건강의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16명의 포럼 참석 회원들은 포럼이 끝난 뒤 김 원장과 함께 근처 생맥주 집에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조성완 박사



# 事實대로 밝히고 석고대죄를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에서 오래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자유기고가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노 언론인입니다.

요즘 날이 밝으면 온통 '노무현 게이트' 얘기가 장안의 최대 화두이고,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돌출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됐음을 먼저 밝힙니다.

전임 대통령 일가의 불명예스러운 검은 돈 거래와 관련된 얘기라서 듣기에도 민망하고 대외적으로도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의 마음이 이렇듯 착잡할 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께서도 심기가 오죽 불편하실 것인지 짐작이 되기도 남습니다.

퇴임 후 봉화마을에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신문 방송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전직 대통령의 거액 수뢰사건, 심지어 술집에서는 그 얘기로 술 몇 병은 안주 없이도 거뜬히 마시는 그 엄청난 소문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대통령 재임 중에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으로부터 1차로 100만 달러, 2차로 500만 달러 등 모두 600만 달러의 검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만일 자신이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이 결백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왜 직접 나서서 조목조목 명쾌히 해명을 하시지 않고 뜬금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만 알송달송한 글을 올리십니까. 만일 그런 의혹이 10분의 1이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전직 대통령 일가의 망신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수치로도 연결될 터이니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답변이 궁해지면 “증거를 내 놓아라”고 역습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데 ‘정황증거’도 증거는 증거가 아닙니까? 앞으로 검찰에서 흑백이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지금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는 충분할 정도입니다.

요즘 '600만불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노 전 대통령에게 붙어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70년대에 TV 시청률 단연 1위였던 인기 연속 드라마의 주인공(스티브 오스틴 扮)을 지칭한 말인데, 그게 왜 우리 나라에서는 요즘 새로운 유행어로 다시 등장했을까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우주비행 사고로 잃은 눈과 팔을 과학의 힘으로 기계화하는데 성공, 괴력의 바이오닉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악당을 물리친다는 것이 줄거리였습니다. 물론 노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다만 그 600만불이란 숫자가 이번 사건의 뇌물액수와 일치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왕에 문제는 터질 만큼 터졌고 사건의 본질도 여러 갈래의 복선이 없이 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구차한 변명이나 짜맞추기식 3류 '각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



지 용 우

· 본보 편집고문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전해서 가져오라고 주문했다지요? 게다가 그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경내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라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란 대권을 위임받아 국사를 돌보는 신성한 장소가 아닌가요. 그런 곳이

인 남편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는 냉소적 여론이 지금 비등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쪽으로 여론의 대세가 기울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의 거짓말보다 몇 배나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실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도중에 사임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한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워터게이트'를 닉슨 자신이 배후에서 모두 지시하고도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미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용서 받지 못할 지도자라는 분노의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확정됐을 때 국민의 상당수가 크게 환호했던 일이 저로서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시대가 막을 내리고 서민적 대통령시대가 도래했다고 주로 서민층들이 크게 환호한 것입니다. 당시의 한 논평을 인용합니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다” “우리 사회의 비주류, 즉 학벌이 낮고 배경이 없어도 원칙과 소신이 있고 정직한 사람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서민출신 대통령이니 서민층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등등이다. 과연 그랬나요?

강남에 사는 중상류 이상의 가진 자들과 서울대 출신을 이유없이 싫어한 것은 사실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민출신 대통령으로서 서민을 위해 하신 일이 무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금폭탄을 투하해서 부유층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못하는 빈곤층을 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자란 성장과정에서 한이 되어서 대통령 재임중에 남의 돈을 600만불씩이나 차용증도 없이 썼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빌린 돈 빚값은 데쓰고 아들 유학비용으로 썼다면 퇴임 후 언제 그 많은 빚을 갚으려고 했지도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 가운데에는 이런 말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퇴임후에 임대주택에서 살 터이니 다들 집팔고 전세로 가라”고 한 말. 그런데 봉화마을의 궁전이 임대주택인가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만 인격자입니다. ‘남이 하면 간통, 내가 하면 로맨스’란 2중인격으로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보다 인생을 오래 산 소생의 ‘개똥철학’이라 해 둡시다. [4]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 「600만불의 사나이」 패러디 등장 「증거」 말하기전 2중인격 벗어야

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망은 계속 좁혀질 것이고 시간의 흐름은 어차피 노 전 대통령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쯤에서 사나이답게,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답게 사실을 사실대로 시원히 국민 앞에 밝히시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인다운 면모일 것입니다.

본시 '뇌물'이란 상대가 주어서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권력자가 먼저 달라고 해서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니 이는 엄밀히 말해서 '뇌물'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권력자의 부도덕 행위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돈도 모두 달러로 환

속된 말로 '한 탕' 하는 장소로 이용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블록버스터류의 조폭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리스트'와 연결된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에서 “집(부인)에서 받은 것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건이 엄연히 재임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퇴임후야 알았다”며 뇌물수수의 책임을 권양숙 여사에게 몽땅 떠넘기셨더군요. 아들(건호)의 미국 유학자금으로 빌려 쓴 돈을 갚기 위해 1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권 여사가 대통령



# 스포츠強國 다운 보도매너 아쉽다

“봉중근 의사의 ‘도쿄대첩’ 2탄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일보 3/18), “‘사무라이 저팬’과의 도쿄대첩을 승리로 이끈 선장의 저력은 무엇일까”(경향신문 3/11), “봉중근 열사, 오늘도 日 쏜다”(동아일보 3/18).

언뜻 한·일간 전쟁 상황을 보도한 종군기자의 기사처럼 보인다. 사실은 양국간 운동경기에 관한 기사다. 운동 경기를 전쟁처럼 치른 예가 있기는 하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월드컵축구 예선에서 흥분한 관중의 충돌이 5일간의 전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경기는 벌미였을 뿐 두 나라간 오랜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었다.

흔히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강건한 민족이 주변 국가를 지배했던 것을 보면 과히 틀린 말은 아닌 성 싶다. 동서냉전 시대에는 공산 독재국가들이 국제 스포츠를 장악하다 시피 했다. 전투력을 배양기 위한 훈련으로 스포츠를 원용했기 때문이다. 또 독재국가는 인민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도구로 스포츠를 이용하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강점하여 식민통치하면서 동대문 운동장을 육구분출의 장으로 삼았다. 조·일 축구시합에서 의도적으로 저점으로써(사실은 실력도 모자랐지만) 조선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정을 식히는 술수를 썼던 것이다.

스포츠가 국수주의자, 독재정권의 통치수단이거나 도구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스포츠는 교류와 이해와 친선의 도구로, 그리고 레저의 한 방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승패보다는 정당당당함과 최선과 우정

을 더 높이 사는 스포츠정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문 지면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애국적이며 선정적이고 편협하다. 야구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과 김연아의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다룬 보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일본의 도쿄대첩 2라운드가

신문시평



최 병 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빙상경기 쇼트트랙의 경우 지난 수년간 오노(미국 대표)에게 금메달을 도둑맞았다며 얼마나 국민감정을 자극했던가. 그러한 태도가 국제스포츠계의 눈총과 견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말이다. 이번 김연아의 경우도 “세계 피겨여왕 김연아가 일본 선수들의 노골적 연습방해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조선일보 3/14), “피겨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채점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왜 김연아에게만 불리한지도 의문이거니와 심판 수를 줄인 것이 일본의 작전이라고 우겨서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스포츠 보도의 애국적(?)이고 편협한 기사는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남북한 홈경기에 대한 보도를 보면 윤곽이 더욱 뚜렷해진다. 북한 정대세 선수의 헤딩슛은 골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게 축구 마니아들의 일반적 견해다. 축구 전문기자라면 최소한 주·부심의 경기운영 미숙과 실수를 짚어주었어야 옳다.

노골 선언으로 패배한 북한측의 억울한 감정을 위로하고 다독거릴 줄 아는 포용력도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북한 축구팀 감독 불편한 심기” 1단기사(4/1)가 고작이었으며, 한겨레도 “정대세 골 논란-주심과 부심의 권한”(4/2)이라는 연합뉴스를 전채해 책임회피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경기장을 찾은 김연아에게 더 관심을

을 쏟았다.

건전한 수준의 경쟁의식은 오히려 동기부여 요인이 되고 활력소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운동경기를 전쟁상황으로 몰아가며 필요 이상의 격앙된 감정을 부추기거나 경쟁국과 경쟁선수를 매도하고 자극하는 것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이다. 스포츠 강국다운 품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언론의 역할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 ‘봉중근 의사의 도쿄대첩’ 등 전투적인 표현 지나친 애국심으로 국가 이미지 손상 우려

펼쳐진다” 조선일보의 야구 관련 기사 제목(3/9)이다. 한·일간 축구경기에서의 승리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대첩’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97년 프랑스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원정경기를 보도하면서부터이다(2:1로 승리). 그러니까 10여년 동안 한·일간의 운동경기가 있을 때마다 ‘대첩’을 단골 메뉴로 삼아 지면을 꾸려온 것인데, 이번에는 ‘봉중근 의사’ 운운하면서 노골적인 호전의식을 보였다.

퀵 김연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쟁자들, 특히 일본 선수들의 견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동아일보 3/16)며 사실 확인 없이 오보를 하거나 ‘SBS의 보도’를 인용했을 뿐이라는 식의 책임 비켜가기를 했다.

심지어 “김연아 울리려고... ISU, 채점규정 바꾼데 이어 심판 수까지 줄일 움직임, 일본 영향력 작용한 듯”(중앙일보 4/22)처럼 지레짐작으로 악의적

## 抗日 필봉의 선구자 裴說 선생 서거 100주기 되돌아본 업적

항일 언론의 순교자...배설(영국명 어네스트 베텔) 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생한 ‘독립투사’로서의 투쟁을 다시 되짚어본다.

우선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항일 운동사에 지대한 역할을 한 족적을 살펴 보겠다.

중앙일보는 1968년 당시 런던 박중희 특파원이 ‘런던의 유족을 찾아’ 시리즈를 게재했다. 영국신문에 실렸던 대한매일신보 사장 시절의 배설 사진과 배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한 고종황제의 칙령문을 실었다. 또 양화진으로 가는 상여와 조객들 사진, 대한매일신보 사람들, 양기탁 편집국장 사진, 배설의 죽음을 애도하는 양기탁의 조사도 함께 게재했다.

이선근 박사는 그의 항일 투쟁기 ‘정의의 횃불 불굴의 언론’에서 역눌린 한국인 대변, 그가 쓴 사설 한자 한자에 일제탄핵을 고발, 비운의 38세, 피 끓는

항일논설, 몸바친 독립지원을 역설했다.

조선일보는 1964년 4월 4일자 사설 ‘배설선생의 공적을 되새겨 보자’에서 제 8회 신문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찍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정책을 과감하게 폭로, 비판하다가 고혼마저 한국에 묻은 영국인 어네스트 베텔 선생을 다시 추모하고자 한다. 배설 선생의 공로를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미 1910년 2월 당시의 유지들에 의하여 그의 묘비가 양화진에 묻힌 고인의 묘 앞에 세워진 바 있다.

이미 60년 전에 한 젊은 외국인이 이 땅에 건너와서 2,000만 한국인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면서 당시 노·일전쟁 승리에 의기충천하던 일제의 침략정책을 규탄하는 정의의 필봉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후려갈겨 널리 명성을 떨친 그의 용감성과 과사현정의 정의감 앞에 우리는 다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전 상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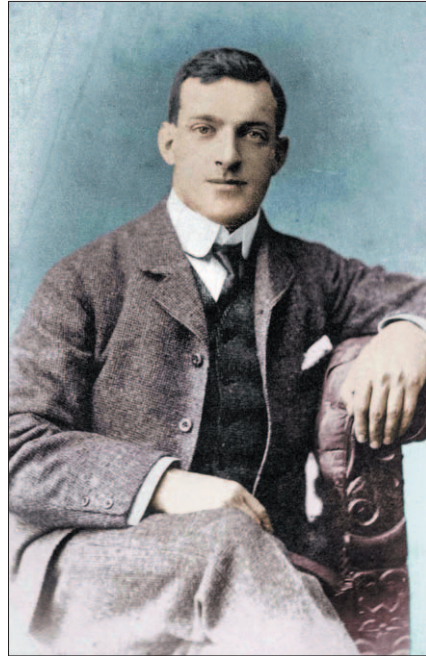
· 본회 회우  
· 경시대 초빙교수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수 없다.

6년간의 고투 끝에 뜻 있는 포부와 계획을 완전히 실현 못하고 기구한 죽음을 당하게 된 그는 “외세의 강점으로부터 한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나의 신문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의 절실한 유지대로 그 훌륭한 대한매일신보의 전통을 길이길이 이어받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결국은 그의 경고와 예언대로 이땅 이민족은 그의 사후 얼마 안가서 일제의 강점하에 들어갔고 36년이란 긴 세월을 그들의 철권정치와 착취에 시달려



裴說 선생.

야만 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태산 같기만 하다. 그럴수록 언론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무거운 이때에 우리는 이 나라 언론사에 남긴 배설 선생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장한 기개와 불굴의 정의감을 거울삼아 더욱 정진하기로 하자.

9면으로 이어집니다.



# 政策혼선 다룬 프로 혼란만 부채질

## 종합적 분석프로 필요

공자는 나라를 튼튼히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답한다. 튼튼한 군비와 넉넉한 식량 그리고 백성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도 아니요, 양식도 아니요, 백성들로부터의 믿음이라는 것이 공자의 주장이다. 이같은 공자의 말씀이 현대 정치현실에 딱들어 맞을지는 아무도 단언치 못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고금을 막론하고 맞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둘러싼 혼란상을 보고 있노라면 도를 넘어서는 느낌이다. 각 부처간의 불협화음도 문제지만 정부 여당 사이의 당정협의를도 빼적거려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PSI(대량 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문제가 그렇고, 자동차산업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 크고 작은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뒤 지난 3월 16일 발표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문제'는 여당내의 수뇌부간 이견표출, 젊은 의원들사이의 반대 움직임은 국민들로부터 한나라당이 과연 여당이 맞느냐는 비아냥까지 사고 있다.

필자는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에 바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든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다. 여기서 공영방송들의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된다. 방송이 빠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빠른 정보 못지 않게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도 전달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PSI 참여문제를 다룬 KBS 심야토론(4월 18일, 대북제재, 북핵위기 다시 오나)과 MBC 100분 토론(4월 17일, PSI 전면 참여와 남북관계)은 PSI와 남북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문

제는 국민생활에 직결되고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음에도 이를 다루는 KBS와 MBC의 태도가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KBS는 4월 16일 아침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출연시켜 양도세 종과세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물었고, 임태희 의장은 완화에 찬성하는 자신의 견

방 송 시 평



신 대 군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짜증만 주는 상황이라면 그런 욕구는 한층 더 높아진다.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외여행이다. 그러나 높은 환율과 쪼들리는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힘드는데 해외여행 대신 TV의 여행관련 프로그램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중과 TV에서 방영되고

다녀온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제한된 예산과 빠듯한 일정 등을 생각하면 지금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EBS의 '세계 테마기행'과 비교해 보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KBS가 PD와 카메라맨을 직접 파견해서 제작하는 프로다. 그런데도 외주제작하고 있는 EBS의 '세계 테마기행'과 비교해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는 KBS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방영된 EBS의 '세계 테마기행' 남인도편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군소 외주업체가 준비한 사전 기획과 현지 섭외가 의외로 탄탄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도시 위주의 프로에서 느끼지 못했던 점들이 돋보였다. 그들이 KBS보다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입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몸바이의 빈민촌에서는 아직도 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남인도 어느 시장 골목에서 만난 상인들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우리는 해탈한 부처를 떠올린다. 상인들의 환한 웃음에서 우리는 좋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여기서 필자는 해외여행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첫째; 시청자는 PD나 게스트의 얼굴만을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프로의 경우는 KBS '체험현장'처럼 출연 게스트의 얼굴이 너무 자주 등장했다('세계 테마기행' 태국편). 둘째; 일부 나레이터들의 사투리는 지나치다. 여행 프로이지 코미디 프로는 아니기 때문이다('테마기행' 인도편). 셋째; 음악 하나도 신경을 써야 한다(그리스편에 남미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넷째;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아이탬의 압축이 필요하다. 제한된 제작비와 인력, 시간을 쪼개가면서 제작하다보니 억지로 여러 편으로 나눈 것이 표가 난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보면서도 불편해진다.

여행프로를 즐겨 보는 시청자들은 '도자기'나 '실크로드' 같은 높은 격조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4]

## 양도세 완화문제 贊反 다른 입장 따로 소개 즐거움 주는 여행프로그램 「玉의 티」 없어야

해 위주로 답변해 청취자들이 완화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반면 같은 날 MBC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출연시켰으며, 홍대표는 종과세 완화에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 위주로 답변했다. 여기서 공영방송 KBS와 MBC는 청취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는 이슈를 다루면서 양측 주장이 함께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청취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는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정부 정책은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하게 마련이다.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서도 안되지만 부정적 시각으로만 일관해서도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공영방송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 여행 프로그램의 즐거움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일탈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더구나 요즘처럼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정치도

있는 해외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세계는 넓다'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리고 EBS의 '세계 테마기행'이 대표적인 프로인 것 같다.

'세계는 넓다'는 아마추어 여행가들이 자신이 가본 여행지에 대한 영상물을 제출하고 KBS가 선정해서 이를 소개하는 이른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다. 많은 여행객들이 1년 내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 소개될 때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이 관광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지만 아마추어 수준이라기엔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눈길을 끈다. 이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PD들이 직접 취재대상을 정하고 미리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섭외한 뒤 취재하는 형식으로 보인다. 그냥 심심풀이로 볼만 하다. 좀 아쉽다면 '세계는 넓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젠 어느 정도 이름이 난 관광지에는 안가본 사람이 드물 정도다. 그렇다면

늘부터 새로 출범하는 대한매일의 지령은 그 동안 서울신문의 지령 16,851호에 대한매일신보 당시의 지령 1,651호를 합산한 18,503호가 된다.

서울신문의 대한매일로의 거듭남에 있어서는 혁신호 창간일인 45년 11월 23일부터 서울신문 종간일인 98년 11월 10일까지의 지령에, 앞서 대한매일신보의 총지령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류 언론인 최은희 여사는 1971년 4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배설 기념관 세워 업적 기렸으면...언론기관이 협조해야'라며 '배설 기념관' 건립을 역설했다. [4]

8면에서 이어집니다.

동아일보는 1987년 8월 29일자 정진석 한국외국어대학 교수의 '대한매일신보와 영국인 배설' 한말 언론사료전을 통해 알아 본다에서... 배설이 한국에 와서 언론활동을 벌인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화산처럼 뜨겁게 한국의 독립을 위해 그의 목숨을 불태웠다. 그가 일제와 싸우던 무렵은 한국 민족운동사에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일본은 이미 한국의 언론을 탄압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외교권을 비롯해서 경찰 재정 사법권을 모두 장

악했으나 배설이 하는 신문에 직접적인 탄압을 가할 수는 없었다. 이 신문은 영국의 소유였으므로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민족진영은 이를 이용해서 이 신문을 항일민족운동 중심기관으로 삼았다. 신문사의 총무 양기탁을 비롯해서 박은식 신채호 등 당대 최고의 논객이자 우국 항일지사들이 이 신문에 모여 피 끓는 항일논조를 펼쳤다. 한국일보 1968년 9월 15일자 '허공에 뜬 훈장' 기사는 당시 정종식 파리특파원이 영국서 보낸 기사였다.

전 대한매일신보 사장 고 어네스트

베텔(배설)에게 수여한 한국정부의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를 인정하지 않는 영국의 법규 때문에 공중에 뿔다. 정부는 금년 3·1절에 베텔에게 훈장을 수여코자 유가족을 간신히 찾았으나 '수훈자가 고인이 되었을 경우엔 어떤 경우도 수훈할 수 없다'는 영국 현행법규 때문에 훈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9월 28일 한국일보는 런던 정종식 특파원 기사로 '건국훈장 베텔 유족에게 전달'을 보도했다.

1998년 11월 11일 '대한매일'은... 오



# 自然속 「無所不爲」로 사는 8旬의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0>

₩ ₩ ₩ ₩ ₩

金在英

· 전 서울신문 지방부장대우  
· 전 경북매일 편집국장  
· 본회 산악회 명예회장

인터뷰 글·사진 / 최희조(본보 편집위원·중부대 교수)

金在英 회우는 올해 팔순이다. 땅끝 마을이 있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경향 각지에서 한 평생 신문기자를 하다가 은퇴후 최근 고향에 정착, 매화농원을 경영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연세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신다고 했더니 에피소드 두 가지를 들려준다.

“얼마전 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단을 받는 분이 바뀔 게 아니냐고 묻더라.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기 때문. 또 한번은 영암 월출산에서 우연히 만난 관광객이 김 회우의 나이가 80이란 소리를 듣더니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줄 몰라 왔다면 함께 기념사진 한 장 찍자고 해서 응한 적도 있다”고 했다.

金 회우가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2006년 봄, 만 3년이 됐다. 지난 4월 21일 해남군 현산면 매화리 자택을 찾았다. 스스로를 ‘無所不爲의 獨居청년’이라 일컫는 그에게 무엇보다도 귀향 연유가 궁금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달마산(489m) 기슭인데, 이곳 임야 중 7정보가 우리 선산입니다. 거기엔 조그만 저수지도 있어 붕어와 메기 등 물고기가 많아 친구들과 낚시하기 좋아요.

달마산은 말하자면 우리 집 뒷산인 셈입니다. 그리고 저 앞 산이 가공산(335m)인데 그곳에도 임야 3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께서 가공산의 駕空을 호로 쓰셨습시다.

해와 달이 우리 집 뒷산과 앞산에서 뜨고 지곤 합니다. 밤에는 하늘에 별들이 총총하구요. 공기가 말할 수 없이 청정해요. 선산에는 조부모와 부모님, 형님 묘가 있습니다.”

“올챙이 인생을 살아온 내가 무슨 인터뷰 대상이 되겠느냐”며 겸연쩍어 하던 그의 안내로 집 근처 선산을 둘러봤다.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간벌을 못한 듯 뾰뾰히 들어찬 임야의 야트막한 한쪽에 4개의 봉분(조부모는 합장)과 비석이 가지런히 자리잡고 있었다. 집 마당에는 200여㎡ 남짓한 잘 가꾸어 놓은 화단이 눈길을 끌었다. 철쭉 여러 그루가 앞다투어 피어있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사이사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화단은 거의 혼자 가꾸는데 여기서 소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계절 꽃이 핀다. 여름에 수국과 병꽃, 가을 국화, 겨울 동백 등 꽃이 질 날이 없어요. 가을에 감나무에선 감이 주렁주렁,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저게 하와이 무궁화꽃이에요. 저건 예전에 검정 비녀 만들 때 쓰던 회귀멸종 식물인 묵감나무구요. 저것들은 목련, 작약, 모란, 유자, 비자나무입니다.”

처음 정원을 가꿀 때만 하더라도 ‘해거리’ 인생이었는데 요즘 와선 10년 인생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년생 야생화를 많이 심으면서 꽃이 피고 질 때마다 다음 해 또 필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 그런데 가끔씩 들르는 읍내 꽃집에서 10년마다 꽃이 핀다는 행운목(수서식물의 일종)을 알고부터 그 행운목이 꽃을 피우는 걸 보고 나서

죽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가.

나이들면 먹게 되는 혈압약 등 이런 저런 약을 본래부터 한 가지도 먹지 않을 만큼 건강한 편이고 시골에 내려간 이후 더 좋아진 것 같으니 행운목 꽃을 꼭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집 근처엔 또 논 10마지기가 있는데 벼농사는 남의 손을 빌리고 있다. 거기서 나오는 쌀은 소량의 양식만 남기고 거의 전량을 아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고 한다.

한국자유기독교협회 이사를 지낸 金 회우는 선산을 돌보고 정원을 가꾸는 일 말고도 바쁜 삶을 살고 있다. 노인회에 나가 등산과 건강에 관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각종 원고 청탁을 받아 글쓰기를 한다. 자서전을 쓰기 위해 준비 중이기도 하다. 그는 6권 짜리 <한국언론인물사>와 <대한언론인회 30년사>(1977~2007년)편찬위원으로 참여해 중추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간 산악회는 1983년 한국산악회 산하 단체 가입에 이어 金 회우의 헌신적인 봉사로 더욱 기반을 다졌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인터뷰를 위해 처음 상면했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친화력과 사교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친구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시골에 내려간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는 건 물론, 친구들이 내려오면 달마산의 美黃寺와 두륜산의 大興寺 등 유명한 사찰을 비롯, 땅끝 마을과 보길도, 완도, 진도 등의 가볼만한 곳과 맛으로 이름난 호남 음식점을 안내해 친분을 나눈다.

그는 목포에서 ‘학생주보’라는 주간지에서 첫 기자생활을 했다. 당시 편집국장이 자신의 이름과 동명이인인 김재영이란 분(뒤에 서울신문 지방부차장)이었는데, 면접때 김 국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필기시험 성적은 좋지 않지만 인

## 달마산 기슭 고향 先山 임야-농토 가꾸며 생활 7시간 짜리 日出山 5시간반에 거뜬하게 종주

매일 아침 한 시간 남짓 달마산 기슭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한 주일에 두어 번은 달마산과 두륜산(703m), 월출산(809m)을 오르 내린다. 두륜산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찰로 西山大師(1520~1604)가 임진왜란때 승병을 일으킨 大興寺가 있다.

보통 7시간 걸리는 월출산 종주를 5시간 30분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건 예전부터 등산으로 몸을 단련했기 때문. 남한의 산 가운데 가볼 만한 산은 거의 다 가 보았다.

金 회우의 이같은 등산취미와 경력은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이 됐다. 1989년 대한언론인회에 편집위원으로 입회한 뒤 대한언론인 회보에 글을 가장 많이 썼으며, 산악회 회장을 맡아 등산으로 회우들의 건강과 친목을 다지는데 이바지했다는 게 회우들의 중평. 지금도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행사엔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산악회에서 계획 중인 5월 중순 충북 화양계곡 등산행사에 동참할 날만 버르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30년사>를 보면, 본회 창립 직후부터 친목단체로 활동에 들어



1993년 대한언론인회 동유럽시찰단으로 헝가리를 방문. 공산당기관지 간부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오른쪽에서 네번째가 金회우).

를 뒤흔들기를 보아 합격시켜 주겠다”고.

그뒤 목포일보와 광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사회부장을 거쳐 1963년 초 서울신문 사회부 선임기자로 발령받아 부장이 없는 지방부장대우까지 지냈다. 서울로 옮길 때는 이목우 사회문화담당 부국장장과 장정호 사회부장의 주선으로 스

카웃 됐다.

1972년 한국경제 사업국장으로 잠시 있다가 1988년 경북매일 편집국장으로 기자생활을 마감했다. 학생주보 기자에서 지방지 편집국장에 이르기까지 12번 신문사를 옮겨 다녔다. 사회부 출입처는 서울시청을 비롯 내무부, 보사부 등 거의



손



# 의 「獨居청년」



수 가꾼 화단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김재영 회우.



2004년 12월 대한언론인회 산악회장 시절 산우들과 더불어 거문도 백도를 순회하던중 거문도 동도 바닷가에서 촬영(뒷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김재영 회우).

빠짐없이 거쳤다.

서울신문에서 1964년 내무부 출입 때 이요섭(작고)사진기와 함께 독도취재를 다녀 왔던 얘기를 들려줬다. 그 때까지 독도에는 장관이나 국회의원, 기자가 다녀간 적이 없었다. 울릉군 공보실엔 김회우가 언론사상 최초의 독도 취재기자로 기록돼 있다고 한다.

한·일협정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독도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朴正熙 대통령의 뜻을 신문사에서 받아들여 취재를 갔다. 경찰 경비정으로 가는 데만 11시간 걸렸다. 물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란 현지 근무 경찰관들의 고충 등을 기사로 전하고 서울신문에서 '목마른 독도에 물

을 보내자'는 캠페인을 크게 벌였다. 그 결과 독도에 대형 물탱크를 세워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때는 기자 생활을 명예로 알고 때로는 돈도 써가면서 취재 활동을 했어요. 신문 기사는 좁은 지면에 많은 정보를 담아 독자들이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사가 간결하고 문장력도 있어야 하지요. 사회부 기자들이 탐사보도 기사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어요. 독자들을 감동시켜야 해요. 그리고 어두운 기사보다는 웃음이 있는 밝은 기사, 미담 기사, 계도력 있는 기사를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해요.”

그는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 우리들 모임

## 九日會

제일 만형이 1921년생인 李貴岩(연합신문, 일본경제신문)씨, 그리고 27년생인 朴文松(시사통신, 후지칼러서울대표). 金潤德(연합신문, 평화신문). 郭贊浩(경제통신, (현)일본섬유신문). 朴永植(시사통신, 6·25동란 종군기자, 재훈종합건설회장)씨 등 4명. 또 28년생인 柳承澤(자유신문, 신아일보, 보건·약사신문회장), 韓永燮(KBS 6·25동란 종군기자, (주)

삼광대표). 金貴濟(경향신문, 일본 동화신문). 桂成一(대한일보 6·25동란 종군기자, 평북일보), 鄭文植(서울신문, (주)천수화학 사장)씨 등 5명, 그 다음이 31년생인 孔大植(한국일보, MBC)씨 등 그야말로 30년 가까이 언론사 정치, 경제, 사회부장과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쟁쟁이(長輩, 중국어로 대선배의 경칭)들이고, 그 다음이 모임의 막내인 35년생인 필자 朴晉緒(합동통신, 서울신문)가 끼어



박진서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 현 재향군인회 운영자문위원

할 수 없다.

九日會 멤버들은 두 번이나 참혹한 전쟁에 휘말렸던 세대이다. 같은 연배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死線을 넘어 요행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세월 속의 가치관이 전연 다른 세상에 살게 된 지금, 마치 zero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강요당하는 상반된 두개의 세대 속에 황당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일선 기자시절에 있었던 무궁무진하고 기상천외한 사건들과 간의 좌절들을 되짚어 본다. 아무튼 모두들 상상을 초월하는 파란의 인생역정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九日會 멤버들도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때인가 멤버 중

## 21년생 필두로 모인 「長輩」들 매달 9일 맛집돌며 情談 나눠

있다. 그러나 徐承璧(산업경제신문, 대한조정협회 회장)씨가 2007년 애석하게도 갑자기 타계해 한 사람 줄었다.

1990년대 초경 대한언론인회 모임 등 여러 모임에서 자주 만나 오다가 이귀암, 박문송, 유승택, 한영섭, 곽찬호, 정문식씨 등이 아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고 지난 2005년 11월 9일 박문송씨가 총무를 맡아 매달 9일에 모이는 九日會가 생겨났다.

전에는 인정사정없는 취재경쟁 상대였지만 이제 50년 가까운 죽마고우. 만나면 석별의 아쉬움 때문에 서로 손을 놓지 못한다. 주로 아바이순대(을지로3가 현재 폐업), 을지면옥, 광화문 삼계탕집, 문화설렁탕(을지로4가) 약수동 춘천막국수집 등을 돌며 소숫잔을 주고 받으며 담소를 즐긴다.

모두 말술을 사양 않던 호주가였지만 지금은 절주한 사람도 있는데, 90세에 가까운 이귀암 쟁쟁이가 아직도 권하는 술잔을 마다않고 마셔대는 데는 경악을 금

한 분이 몇 살까지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이 대화를 끊었는데 순간 지난 생을 반추하며 숙연해진 적이 있었다. 한참 후에 누군가가 요새 九九八八이란 말이 있지라고 말해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다.

모두들 특출하게 출세는 못했지만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 “할 것은 다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중국 明代의 중신으로 83세까지 장수한 呂新吾가 쓴 呻吟語 속에서 비슷한 여생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좌우명이 될 名句가 생각난다.

“가난을 羞恥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수치란 뜻을 세움이 없는 것이다. 年老하다고 한탄하지 말라. 한탄은 연로해서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지 말라. 슬퍼할 것은 죽은 후 곧 이름까지 망각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떠올라 말미에 적는다. 이제 모두들 충실한 만년을 보내기 위해 주어진 환경은 각기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뿐이다. ㄹ

부인을 여의었다. 여학교 때 단거리 육상 선수였던 아내는 작고하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던 서울올림픽 구경도 못한 채 그해 7월 7일 유명을 달리했다. 미인으로 소문났던 아내에게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잘 해주기는 커녕 속만 썩여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아쉽다고 말했다.

용인에 부인의 묘소가 있는데 금년 중에 이곳 달마산 기슭 선산으로 이장할 계획이다. 부인과 사별후 재혼을 하지 않고 20년 넘게 홀로 살고 있다. “아내가 갔을 때 1남 3녀(딸, 아들, 딸, 딸)가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 누가 오겠느냐며 웃었다.

친구도 많고, 이것 저것 하는 일이 많은 金 회우지만 인터뷰하는 동안 몇 차례나 ‘고독’이란 말을 입에 올렸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 사장을 지낸 ‘리 아이 아코카’의 자서전에 나오는 ‘참기 힘든 건 고독’이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시골 생활이 좋은 점도 많지만 마냥 목가적이고 낭만으로만 동경할 대상은 아니며 고독하고 불편할 수도 있음을 비쳤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에 대한 그의 자랑 역시 뒤지지 않았다. 손자 손녀가 6명이나 된다.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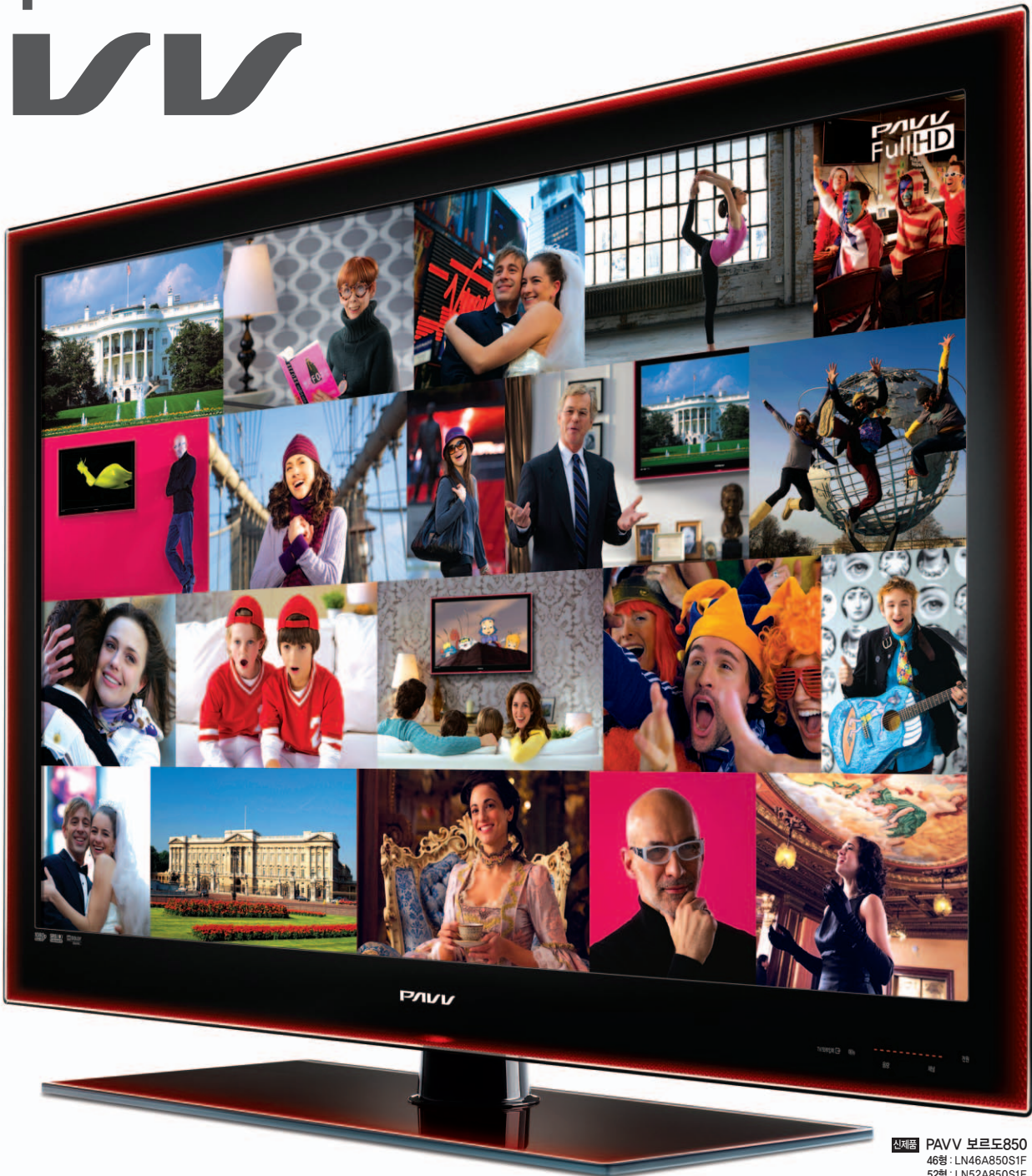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 세계 1위 PAVV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TV,  
세계는 PAVV를  
보고 있습니다

이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당신입니다



신제품 PAVV 보르도850  
46형 : LN46A850S1F  
52형 : LN52A850S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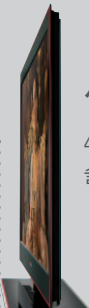
Allfree

창립 40주년 기념 12개월 특별할부!  
80만원은 선포인트 할인받고, 잔액은 12개월 부담없는 할부~  
• 삼성카드 100~300만원 이상 결제시 해당점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 세계가 놀란 화질

블랙패널 Full HD로  
더욱 선명한 PAVV



## 세계가 놀란 디자인

44.4mm 크리스탈  
슬림 디자인



## 세계가 놀란 기술

CES 혁신상 7년 연속 수상  
IF 디자인 어워드 6년 연속 수상  
EISA 어워드 6년 연속 수상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



# 漢文에 짝 막히는 우리 語文體의 비극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을 읽어야 한다. 글 쓰는 것이 직업인 언론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리 나라 지식인의 통폐이기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약점은 꼭 읽어야 할 우리의 고전(古典)들을 제대로 읽어 낼 실력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좋은 글들은 모두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한문에 밝지 못한 사람은 이 글들을 읽어낼 능력이 없다. 우리 나라 언론인의 대부분이 이런 딱한 실정에 있다. 이것은 서양과 비교하면 우리만이 짝어진 우리 어문체제의 역울한 핸디캡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 사람들은 400년 전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아무런 불편 없이 지금도 수월하게 읽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셰익스피어와 동시대인인 임진왜란 당시의 재상 류성룡(柳成龍)이 써 놓은 징비록(懲毖錄)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400년 전은 고사하고 220여년 전에 쓰여진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우리 언론인들이 꼭 읽어 보아야 할 훌륭한 르포르타주인데도 읽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근세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세계의 사정을 우리 나라에 처음 알린 유길준(兪吉濬)의 저서 서유견문(西遊見聞)이 출판된 것이 1895년이 었다. 개화과 선각자인 유길준은 우리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 이 책을 알기 쉽게 쓰느라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으로 한문과 국문을 섞어 썼다. 그런데 지금 읽어 보면 그 문체가 어렵기는 매 한가지다. 구미 여러 나라에 있는 신문을 소개한 장면을 원전 그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書舍餘話 ⑨



최서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코리아 헤럴드 사장

新聞紙는 衆人이 會社를 結하야 其局을 立하고 世間の 自新하는 事情을 探知하야 其記出하는 文章을 登板하야 天下에 公布하는 者니 朝廷의 政事와 官家의 命令과 官員의 進退로부터 道路의 風說과 商賈의 盛衰와 農作의 豐凶과 物價의 高低와 各處學校의 修學하는 景像과 各地學者의 窮究하는 術業과 民間의 苦樂과 生死며 外國의 傳聞에 至하야 實景眞態奇事異言이 足히 世人의 見聞을 傳呼 者...

특별한 훈련 없이는 그 뜻을 알기 어렵기로는 3·1운동 때 선포된 육당(六

학사상의 선구자인 조선 중기의 선비 류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이었다. 그런데 이 글이 어찌나 어렵던지 모두 손을 들고 말았다. 옥편에도 없는 난해한 글자가 수두룩해 공부가 제대로 안되었다. “말로는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면서 공부하는 그 꼴이 뭐냐!”고 천 주필한테 야단을 맞으면서 그럭 저럭 반년동안 공부를 계속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1960년대의 일이다.

언론인들이 동양 고전에 너무나 무식한 것을 한탄하고 자칭하여 후배들에게 한문을 가르친 대선배 한분이 또 있다. 석천(昔泉 吳宗植)이 바로 그분이다. 그가 코리아 헤럴드(당시는 대한공론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영문으로 사설을 쓰고 있는 논설위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점심 후 1시간 사설실에서 한문강의를 했다. 영어를 한답시고 서양문물을 좀 씹어 봤을 테니 그것을 바탕으로 동양을 들여다 보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지론이었다.

강의의 교재는 한무제(漢武帝)의 추풍사(秋風辭), 왕일소(王逸少)의 난정기(蘭亭記),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등이었다. 오종식 씨는 우리 나라 저널리즘에 문명비평론적인 문학을 접목시킨 큰 공로자라 할 수 있다. 후배들이 좀 더 격조 높은 글을 쓰도록 손수 강의까지 했으나 후배들이 시원치 않았던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제는 세월이 변해 서점에 가보면 웬만한 고전들은 알기 쉬운 현대문으로 번역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생각은 남는다. 글이라는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필자가 구사하는 어구의 선택, 문장을 이끄는 리듬감각 등 말하자면 그 필치(筆致)를 맞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전이 아닌 번역본에서는 이런 필자 특유의 생명력을 느끼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가에 꽂힌 옛서적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나의 소감이다. [출처]

## 記者시절 千寬宇-吳宗植선생에게 배워 古典을 번역본으로 읽어야 하는 아쉬움

堂 崔南善)의 독립선언서도 마찬가지다. 1776년에 쓰여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런 위화감 없이 술술 읽는데, 1919년에 쓰여진 우리의 독립선언문을 오늘의 우리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처한 우리 어문체제의 비극이다. 서양 사람들이 쓰는 문체(文體)와 우리가 쓰는 문체는 이렇듯 석금(昔今)의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역으로 있을 때, 몇몇 동료들과 함께 천관우(千寬宇)씨에게 한문을 배운 일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 주필로 있었던 천 선생은 우리들의 희망을 듣자 흔쾌히 응낙, 1주일에 한번씩 <신동아>잡지 조사부에 모여 한문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8명으로 출발했다. 천관우 주필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났던 수재인데다 실학(實學)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사학자로서 한문에 능통했던 언론인이었다. 교재는 실

## 기암절벽 화양구곡으로 초대

본회 산악회 5월 26일(화) 山行계획



화양구곡의 금사담.

본회 산악회는 2009 상반기 산행을 충북 괴산군 화양구곡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화양구곡은 너럭바위와 맑은물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명승지로 오는 5월 26일 화요일 이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회원들(가족 동반 환영)의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09년 5월 26일 화요일
- △집합장소 = (강북팀) 오전 8시 정각 프레스센터앞 출발 (강남팀) 오전 8시30분 잠실 롯데호텔앞(곰돌이상)
- △산행지 = 충북 괴산군 화양구곡(총길이 약 4km 왕복 2시간 소요)
- △신청마감 = 2009년 5월 20일까지(선착순 40명)
- △신청처 = (산악회 총무 011-443-0063)
- △준비물 = 각자 음료수와 계곡 산책에 필요한 필수품
- △회비 = 1인 20,000원(가족동반 할인)

※산행뒤 향토음식점에서 뒷풀이 오찬(오후 1시30분 예정).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안종우



**백상 장기영사주 추모식** 한국일보 창간 발행인인 백상 장기영 사주의 32주기 추모식이 지난 4월 11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묘소에서 거행됐다. 이 자리에는 본회 권혁승(한국일보 사우회 회장), 김해도, 박진열, 손일근, 정태연, 제재형, 조두흠, 홍원기 회우(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 경제에 플러스 가족에 플러스 생활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도심 및 도시 인근에  
국민 모두의 내집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이 당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new** 뉴플러스

## 국민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new** 보금자리주택

- ▶ **NEW + 가격인하**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 15% 내외 인하
- ▶ **NEW + 주택유형** 중소형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 ▶ **NEW + 입지조건** 도심이나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집중 공급
- ▶ **NEW + 건설기간**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
- ▶ **NEW + 녹색도시**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그린홈 공급

**new** (뉴플러스)란?  
국민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브랜드**입니다.

문의처 1588-9082 | [www.newplus.go.kr](http://www.newplus.go.kr)



나의 山行記

# 호남의 금강산 月出山

월출산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일컫는 영암 월출 일천봉(809m)!

아직도 나뭇가지가 앙상한 초봄에 나는 숲에 가리지 않고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바윗산을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올랐다. 과연 천태만상의 짐승처럼 도열해 있는 아름다운 바윗산을 볼 수 있어 서울에서 7시간이나 달려온 피곤함도 한 순간에 사라지고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월출산은 고작 800여m의 낮은 산이라고 만만하게 보았다면 큰 혼썰이 난다. 산행을 하는 동안에도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다. 전형적인 꽃샘 비였다. 그 추적거림에도 초봄의 정취는 느낄 수 있었지만 확 트인 조망을 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날 산행은 월출산 동쪽 입구인 천황사에서 출발, 구름다리를 거쳐 정상인 천황봉에 올랐다가 구정봉에서 역새발을 거쳐 반대편인 도갑사로 하산하는 월출산 종주코스였다.

산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반적인 등산로다. 총 8.5km로 약 6시간이 소요된다. 천황사 입구에는 이른 봄이라 아직은 나뭇가지만 앙상했으나 물오른 가지에서 곧 꽃망울이 터져 나올 듯 생기가 돌고 있었다.

구름과 빗줄기에 가려 산의 높은 곳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스쳐가는 먹구름 사이 사이로 마치 마법의 궁전처럼 나타났다가 지워지는 빗속의 월출산은 금강산의 만물상을 방불케 했다.

천황사는 등산로 초입에서 약 400m 대나무 숲 속에 가려져 있다. 큰 사찰은 아니지만 신라 때의 절터에 1905년 누군가 암자를 짓고 수도를 시작한 것이



월출산의 명물인 구름다리.

## 높이 200m 구름다리 스틸 만점 천황봉 난코스 바위사이 절경

이 암자의 내력이며 7년 전 작은 절집마저 불에 타 복원한 것이 현재의 암자다.

산행길은 천황사를 지나면서부터 계속 가팔라진다. 천황봉 정상에 오를 때까지 가파른 길은 이어졌다. 천황사에서 약 1시간을 숨가쁘게 올라 가면 월출산의 유명한 구름다리에 도착한다. 이 구름다리는 월출산의 명물 뿐만 아니라 국내 명산의 구름다리중에 명물이기도 하다.

길이는 20여m에 불과하지만 다리 밑의 협곡 길이가 무려 200m나 되니 그 아슬아슬한 전율은 스틸 만점이다.

다리의 중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소중함을 함

게 느끼게 된다.

또한 구름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압권이다. 바위 골짜기를 내려오다 오금이 저려 발길을 옮기던 한 등산객은 그 경황 속에서도 난간을 붙들고 시야에 들어온 풍광에 취해 있었다.

구름다리에서부터 천황봉까지의 약 2시간 동안은 난코스 중의 난코스다. 숨이 차올랐으나 발길을 옮길 때마다 변화하는 월출산의 절묘한 모습에 가슴이 더 뛰었다.

드디어 "천황봉".

호흡이 저절로 멎는다. 사방은 온통 바위의 바다이다. 기기묘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최고봉인 천황봉을 중심으로

### 최귀조

- 본회 이사
- 산악회 총무



햇살처럼 펼쳐져 있다. 사나운 짐승들이 우두머리를 향해 도열하고 있는 듯 1,000 봉우리의 기암 괴석들이 감탄사를 저절로 연발케 한다.

천황봉에서 구정봉까지는 마루금(주능선)산행이다. 구정봉은 정상에 아홉 개의 물웅덩이가 있는 봉우리다. 물웅덩이는 육조만한 것부터 바가지만한 것까지 다양하다. 이곳의 물은 마르는 법이 없어 기우제를 지낼 때 모셔가기도 한다. 구정봉에서 약 30여 분이 걸리는 터널지대를 통과하면 마지막 쉽터인 역새발에 이른다.

힘든 산행은 일단 여기까지다. 노을이 지면서 하산 목적지인 도갑사가 눈앞에 보였다.

세찬 비 바람과 악천우 속의 월출산 종주!

백두대간이 새끼 처 호남평야의 한 자락에 상아빛 바윗산을 솟구쳐 올려놓은 월출산 산행은 이렇게 끝났다. [출처]

## 90여회우 즐거운 하루 상반기 歷史탐방 대성황

대한언론인회 상반기 역사 탐방이 3월 31일(화)에 83명의 회우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전 참전 순직 종군기자 기념탑 참배 등의 일정으로 파주시 일대 문화유적을 탐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아침 8시 반에 두 대의 버스를 가득 채운 회우들은 통일로를 따라 먼저 광탄의 용미리 석불을 찾아 임한순 회우로부터 높이 14m가 넘는 보물 93호 용미리 석불이 우리 나라 최대의 입석 석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석불 옆에 있는 윤관 장군 묘를 찾아 조선조 영조 때부터 시작된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문중의 묘자리 싸움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이날 탐방한 문화유적에 대한

임 회우의 흥미진진한 설명이 있었다.

윤관 장군 묘소 참배 뒤에는 울곡리의 울곡선생 일가 묘와 자운서원을 둘러보았고 화석정에서 임진강을 내려다 본 뒤 폭포양어장에서 송어 회와 튀김, 매운탕으로 점심을 들었다.

점심 뒤에는 조선조 초의 명재상 황희 정승이 정국을 구상하던 반구정에 들러 기념관과 영정 등을 둘러보면서 파주시 문화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 문산읍의 통일공원에 있는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기념비를 참배했다.

종군기자를 대표한 김영진 회우와 조창화 회장이 함께 헌화하고 참가한 모든 회우가 선배 기자들의 숭고한 기자정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기념비 참배뒤 기념촬영.

신을 기리면서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참배 시간에 맞춰 따로 합류한 지갑종 회우가 기념비의 건립과정과 그 동안의 관리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날의 문화유적 탐방을 끝내고 일산을 거쳐 프레스센터 앞에서 헤어졌다. [출처]



임진강 폭포양어장에서 즐거운 오찬.



윤년(閏年)이 드는 그러께 윤달에 할머니 묘소에 상석을 놓고 묘비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983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묘소를 마을 뒤 선산의 한 자락에 모셨다.

평소에 아버지께서 마음 속에 잡아 둔 곳으로, 새로 지관(地官)을 불러 풍수지리를 알아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가 평생을 사시던 우리 집과 마을이 바로 눈 앞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어서 좋은 묘터라고 생각했다. 내 고향은 나를 길러준 강 오십천(五十川)의 옛 강구다리(江口橋)와 그 너머 포구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아늑한 곳이다.

그러나 할머니 상을 당했을 때, 아버지께서도 외병 중이어서 상석이며 묘비를 갖추는 일등을 제대로 손쓰지 못하시다가 당신도 얼마 후 뒤따라 돌아가셨다. 그 후 고향을 찾거나 시제(時祭) 때마다 할머니 묘역을 새로 단장하고 묘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럭저럭 스무해 넘는 세월을 흘러 보내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은연중 하나의 죄의식처럼 되어버린 숙제를 올 윤년에는 꼭 풀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재작년의 윤달이 드는 9월이었다. 때마침 여름 내 번역한 책의 고료가 들어와서 돈은 마련되었다.

청상으로 수절하신 할머니는 생시에 근동 사람들과부터 ‘열녀’라는 칭송을 받으셨다. 여러 곳의 향교나 유림단체로부터 열녀 표창도 수없이 받으셨다. 그러나 그런 표창을 받으러 가시기를 언제나 사양하셨다. 선친이나 어머니가 대신 다녀오셔야 했다. 동네 사람들 집에 경사가 있어도 박복한 당신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 가시기를 마다하시는 깔끔한 분이셨다. 그처럼 겸양의 미덕을 실천하시는 할머니의 바깥

## 수필 할머니의 墓碑銘

출입은 극히 한정돼 있었다. 언제나 집안과 논밭을 오가며 농삿일을 거드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그래도 간혹 고장의 풍어제 별신굿이 열리는 때면 며칠 곳 구경을 하러 가시는 것을 무척 즐기셨다. 내가 어릴 적부터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에 약초를 구하러 간 바리대기 설화를 알게 된 것도 할머니가 굿판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할머니에게는 자식도 낳지 못한 채 홀몸으로 나이는 마나님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하는 태깁이나 히스테릭한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스물여섯명이나 되는 시집 조카들을 내 자식처럼 아껴 주셨다. 그들 하나 하나의 생일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해방이 되기 직전 어느 해 겨울, 누가 우리 집 공간 문을 뜯고 쌀을 좀 퍼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도둑이 골목길에 쌀을 흘리고 갔던 모양이었다. 아홉 남매를 거느리고 어렵게 사는 이웃집의 마당까지 쌀알이 떨어져 있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걸 발견한 할머니는 얼른 빗자루를 찾아 들고 나가서 그 흔적을 쓸어버렸다.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이 알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상태로 만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이다.

할머니의 묘역을 손보기로 작정하고



한영탁

· 본회 회우  
· 수필가

장으로 묘비명을 마련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삼곤 했다. 그런 묘비명엔 흔히 고인의 인품이나 행적이 최상급의 찬사로 미화되는가 하면 해박한 동서의 고사(故事)가 줄줄이 인용되고 비유되기도 했다.

그런 묘비명은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 쓰여져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평소에 할머니가 흔히 당신은 잘 모른다 하시던 진서(眞書?), 다시 말해 한문에 통달하지 않고서는 뜻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유식을 자랑하는 한문 묘비명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도 그러한 묘비명을 지어 받을 만한 분이 없진 않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뜻을 알 수 있는 요즘의 우리말 묘비명을 쓰고 싶었다. 바로 한글세대의 묘비명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더 깊이 존경하는 할머니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 보았다.

‘이 곳에 잠드신 열녀(烈女) 김순남

(金順南) 할머니는 1892년 음력 2월 28일 축산면 염장리에서 안동(安東) 김(金)씨 승한(昇漢)님의 따님으로 태어나서 강구면 오포리의 청주(淸州) 한(韓)씨 종호(鍾昊)님의 둘째아들 규철(圭哲)님에게 출가하시었다. 애석하게도 25세에 청상(靑孀)의 처지가 되셨으나, 그 뒤 근 70년에 이르는 기나 긴 세월을 정결(貞潔)히 수절(守節)하시며 세인(世人)의 공경과 우러름을 받으시며 사시다가 1983년 음력 8월 12일 92세를 일기로 작고(作故)하시었다.

비록 시동생 규범(圭範)님의 맏아드님 경진(景鎭)님을 양자로 삼아 극진한 효도를 받으셨으나, 한 시대의 여자로써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며 숙명의 한평생을 홀로 고결(高潔)하게 보내신 그 인고(忍苦)의 아픔을 어느 누가 모두 알았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나 김순남 할머니는 부처님으로부터 받으신 청정심(淸正心)이란 보살계(菩薩戒)의 계명(戒名) 그대로 향시 맑고 깨끗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사시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크나큰 사랑과 자비를 심어주고 가시었다. 할머니, 당신의 큰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손자가 당신의 자애로운 발자취를 기리면서 명복(冥福)을 비오며 작으나마 이 비(碑)를 세웁니다.

이 묘비명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여류서예가 월정(月亭) 하경희(河璟姬)님의 휘호(揮毫)를 받아 새까만 오석(烏石) 와비(臥碑)에 새겨 고향 뒷산 할머니 묘역에 세우고 나니, 누가 비웃음의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동해 바다가 그 드넓은 품을 벌려 안아 주는 듯했다. (2008. 5) [인]

6·25로 부산은 임시수도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인구 50만명이던 부산은 밀려드는 피난민들로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서 포화상태가 됐다.

서울은 3일만에 함락되고 水原, 大田, 永同, 金泉이 줄줄이 떨어지고 湖南쪽은 추풍낙엽, 지리산을 넘어 晋州까지 맥없이 무너지고 統營도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 大邱와 永川, 慶州도 위협받게 됐다. 미 8군 사령관 겸 UN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정찰기로 전선을 면밀히 살피던 중 낙동강 물줄기를 내려다보고는 바로 저것이라고 마음 먹었다. 여기서 생겨난 이름이 ‘워커라인’.

여기서부터는 결사 방어, 좀처럼 밀리지 않았다.

부산항은 군수물자와 전차 장거리야 포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온 수송선으로 넘쳐났고 하역작업을 마쳐 부두에 쌓인 군수물자는 미 군용 대형 트레일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신동 공설운동장으로 실어 날랐다. 여기서 수량이 파악되면 다시 부산역에서 열차로 또는 육로로 각 전선에 투입됐다.

그런데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미군 트레일러의 위세에 인도가 없는 대청동거리의 인파가 아슬아슬했다.

어느 날 계엄사령부는 일반인의 대청동 통행을 금지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좁은 골목은 넘쳐나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서로 부딪치며 아우성이

었다.

이런 난리판에 경남도청에 자리잡은 공보처(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틀이 멀다하고 그것도 신문 마감시간이 임박해서야 李承晩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화로 통고되면 편집국 사동이 공보처로 가서 프린트된 담화문을 받아 좁은 골목길을 달리지도 못하고 인파를 헤집고 부산역 가까이 있는 신문사에 겨우 당도하는 형편이었다.

편집국은 미련한 공보처의 태도에 부글부글 끓었다.

어느 날인가, 대통령 담화문 전달 사동이 의외로 빨리 편집국으로 들어섰다. 편집국장이 오늘은 어찌 이리 빠르고 물었다. “담화문을 돌돌 말아 손에 높이 들고 큰 길로 달렸어요.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손을 들고 막아서기에 대통령 담화문…하고 소리쳤지요. 그 속의 어느 경찰관은 저에게 경례까지 합니다.” 흐르는 땀을 훔치며 하는 사동

## 잊지 못할 그일들

### 釜山 피난 시절의 新聞社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 종군기자

춘 신문은 민주신보가 유일했다.

6·25가 일어나고 6개월쯤 지났을까, 동아일보가 민주신보에 세들어 신문을 내게 됐다. 우리가 마감을 하고 편집국을 비우면 동아일보 편집국 진용이 들어서서 신문제작을 했다. 편집국 멤버는 10여명으로 기억된다.

편집국장 金三奎, 취재부장 趙寅相, 나는 오후 취재도 잇은채 편집국 한 구석에 앉아 동아일보의 제작을 눈여겨 보았다.

계엄사령부에서 金三奎 편집국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서로가 몇마디씩 주

고 받다가 金 국장이 대뜸 큰소리로 “날 끌고 가서 총살시키시오”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 호통에 나는 놀랐다.

金 국장은 매일 사설을 썼다. 섬뜩 섬뜩한 내용이었다. 동아일보는 타블로이드(신문 한장의 반) 광고도 없었다. 가관 뿐이었는데 나가자마자 행인들은 앞다투어 사 보았다. 놀라울 정도로 잘 팔렸다. 독자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지면이니 폭발적으로 팔려나갈 수 밖에…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잘 팔렸다. 신문팔이 아이들이 “동아일보!” 외치면 행인들은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런데 당시 독설가로 이름난 국회부의장 滄浪張澤相은 “동아일보, 그게 신문이야, 비라지!” 그렇게 비꼬았으나 무섭게 팔려나갔다.

취재부장 趙寅相은 별로 말이 없었다. 과묵했다. 우리가 광복절 특집으로 밤늦게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趙 부장이 거나하게 술에 취해 편집국에 들어섰다. 아무말 없이 웃웃을 훌훌 벗어 던지더니 바지까지 벗고는 팬티바람에 책상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팬티를 내렸다 올렸다 하며 “아예 아예” 일본말 추임새에 맞추어 나체춤을 추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말리지 않고 웃고만 있었다. 얼마나 피난살이가 고달팠으면, 사회와 정치권에 울화가 치밀었으면 그러했겠느냐고 여겼다.

17면으로 이어집니다.



# 大韓言論人會 新入회우 환영합니다



고수웅(高秀雄)

1945년생. KBS 경제부장-파리 특파원-해설위원, 한국농구연맹 상임이사, 현 지역민방협회 상근 부회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이파트 1-1403호 우)150-762 전화)011-9386-1133



(가나다순)



유지형(柳志馨)

1936년생.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경제부 차장-편집국 기획위원, 대한생명보험 전무, 대생개발(63빌딩) 대표이사, 프린스호텔 사장, 한아름금고(예금보험공사) 감사  
서울 은평구 역촌동 84-26 우) 122-903 전화) 011-9994-1743



국기일(鞠基一)

1940년생. 대한일보 지방부 기자(전북 고창 주재)-지방부 차장, (사)한국 내수면어업협회 회장, 해양수산부 수산조정위원, 현 (사)재경전북도민회 부회장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234-2 현대아파트 3-605 우)130-776 전화)02-967-1113



류철희(柳喆熙)

1939년생. 대한일보 사회부, 서울신문 사회부, 내무부 대변인, 제주도 부지사, 천안시장, 충남 부지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8-20(4층) 우)135-826 전화)017-707-5540



이민섭(李敏燮)

1939년생. 서울신문 정치부 차장-논설위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 11~13대 국회의원, 현 한국골프장협회 고문  
서울 서초구 방배동 GS방배자이 전화) 011-229-2227



김경철(金景澈)

1938년생. 중앙일보 주일 특파원-편집부국장-이사, 내외경제·코리아 헤럴드 사장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46-2 삼성포스코더샵 503호 우)195-878 전화)011-9991-2556



마권수(馬權秀)

1946년생. CBS 사회부, KBS 사회부-노조위원장-해설위원, 방송협회 상임이사, 방송위원회 상임이사 현(주)송암시스템 고문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77 우)136-085 전) 011-225-5162



이상우(李相禹)

1938년생.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 편집부,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서강대 교수, 한림대 총장, 한림국제대학원 총장, 현 신아시아질서연구회 소장,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85-301 우) 137-813 전화) 016-788-8395



김영진(金英鎭)

1945년생. 중앙통신 외신부-한국기자협회 감사, 전자신문 외신부장, 연합통신, 국민일보 국제부장-워싱턴 특파원-사장 비서실-편집위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대주파크빌 1202-701 우)472-785 전화)010-3-045-9020



박순신(朴順信)

1954년생. 한국경제 편집부-특집부-교열부 차장-교열팀장, 한국교원기자협회 부회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11 역삼 I-PARK 203-1303 우)135-795 전화)010-4039-3766



이성준(李成俊)

1945년생. 한국일보 정치·사회-편집기자·사회부장-정치부장-이사편집국장-대표이사 부사장 편집인, 관훈클럽 총무, LG상남언론재단 이사, 대통령 언론문화특별보좌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2-1006호 우)140-751 전화) 011-244-7447



김형태(金亨泰)

1952년생. KBS 사회부-정치부 차장-뉴욕 특파원-기동취재부장-사회부장-과학부장-시청자센터 시청자 국장, 자유지식인선언 홍보부장, 2005년 지방선거방송심의위원, 현 케이블 TV CJ 헬로비전 고문  
서울 양천구 목동 905-22 트윈빌 A코아 2403호 우)158-728 전화)011-9164-2030



박준구(朴準求)

1942년생. 동아일보 기자-편집부국장  
서울 송파구 문정동 휘말리아파트 215-1405 우)138-768 전화)011-259-8058



정구종(鄭求宗)

1944년생. 동아일보 사회부-경제부-문화부 기자·사회부장-동경지사장-편집국장-이사 출판편집인, 동아닷컴 대표이사,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연세언론학회 회장 현 동서대 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9 삼성타워팰리스 G동 3004호 우)135-554 전화)010-5251-1653



남선현(南善顯)

1948년생. KBS 워싱턴 특파원-뉴스라인부장-홍보실장-글로벌센터장, 방송협회 사무총장, 현 KBS 미디어 사장,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경기대 겸임교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41-2 판테움 101호 우)137-836 전화)011-898-1500



송 복(宋復)

1937년생. 사상계사 기자, 서울신문 기자, 하와이대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사회학 교수, 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겸 특별초빙교수  
서울 은평구 불광2동 71-16 대창맨시티아파트101-1001 우)122-850 전화)02-387-6725



정일화(鄭逸和)

1941년생. 한국일보 기자-외신부장-북한부장-워싱턴 특파원-논설위원 겸 통일문제연구소장, 신문윤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 경기대 대우교수, 현 한미안보연구회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67-26 우)142-881 전화)011-9788-3836

16면에서 이어집니다.

며칠 뒤 애송이 기자인 나는 趙 부장에게 오늘 저녁 술대접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랫부분을 가리키며 “재발했어, 당분간 술 끊어야 해” 소탈한 이 한 마디였다.

金三奎 편집국장은 작심한듯 李 대통령을 통렬히 비난하는 사설을 쓰고 水營 비행장에서 일본으로 날아가버렸다. 그는 東京帝大 출신으로 동기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망명생활을 했다. 언젠가 東京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中央公論에 그의 글이 실린 것을 읽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金日成도 물러가고 李承晩도 물러가고 제 3의 민주세력이 등장해야 통일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로서는 누구도 감히 입밖에 낼 수 없는 주장이었으나 비현실적인 것 같았다.

동아일보는 그후 1년 쯤 지났을까, 그 동안 모은 자금으로 보수천가에 붙은 벽돌로 2층 건물을 짓고 옮겨갔다.

수년전 구 동아일보 건물에 一民박물관이 오픈했다. 개관 첫날 고인이 된 徐承璧 회우가 둘러보고 왔다가에 피난시절의 타블로이드 신문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보이지 않더라고 했다. 피난지에서 어렵게 발간한 유일한 중앙지인데 왜 그랬을까? 동아일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일텐데 60년 전을 회고하며 나혼자 아쉬움을 달했다.

피난살이 동아일보에는 문선공이 한 사람 있었다. 그의 문선은 오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문선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다. 민주신보 문선공들은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문선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모두가 탄복했다.

양조장을 경영하던 부산토박이 하원준이 韓國日日新聞을 창간했다. 부사장 겸 편집국장 雨聽 李建赫, 부국장 겸 취재부장 趙寅相, 나는 민주신보를 나와서 여기에 합류했다. 창간호가 나가고 3~4개월이 흘렀을까, 雨聽이 趙寅相에게 다가가서 “이 XX 개 XX”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雨聽이 한 때 공보처 공보국장으로 외도할 때 욕쟁이로 소문이 파다했다. 趙 부장은 참다못해 “여기가 공보처인줄 아시오.” 이 한마디에 雨聽은 입을 다물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다.

趙寅相은 와세다(早稻田)대학을 나와 일제 때 京城일보에서 총독부 출입기자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나는 국방부 출입을 하면서 의무실의 어느 의무장교가 일반인 병자를 몰래 돌보았다는 미담 기사를 썼다. 그날 밤

우연히도 편집부장과 함께 雨聽의 부름으로 신문사 앞 골목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 나는 몹시 긴장하고 조심스러웠다. 오늘 미담기사 누가 썼느냐고 편집부장에게 물었다. 바로 내 이름을 대자, 왜 톰으로 올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대꼬챙이에 끼운 어묵을 내 입에 밀어넣으면서 “먹어!” 하는 말에 몹시 당황했다.

연회전문을 나와 경제부 외곽 경력의 雨聽이 부드러운 면도 갖추었다는데 머리가 숙여졌다. 환도후 雨聽은 한국일보 편집국장으로 있다가 張基榮 사장과 대판 싸우고는 편집국 흑판에 “나는 간다”고 크게 써놓고는 미련없이 떠나버렸다.

金三奎, 趙寅相, 雨聽. 모두 이미 고인이 되셨다.

긴 세월이 흘렀다. ㄹ





## 회우동정

(가나다순)

### 한국일보 韓友會 회장 선임



★ 권혁승 회우 = 4월 9일 명동 한국일보 강당에서 열린 한국일보,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등 한국일보와 자매지의 전직 사주 모임인 한우회(韓友會) 2009년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 대한민국 도서대전 입선



★ 김윤덕 회우 = 제 15회 대한민국 도서대전 예서(隸書) 부문에 입선했다.

### 미국 어머니님 산소 성묘



★ 김진섭 회우 = 오는 5월 23일께 미국 롱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를 갈 예정이다. 김 회우는 1918년 생으로 올해 92세이다.

### ‘한·미 비전협회’ 창립



★ 김진현 회우 = 4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국무부가 후원한 미국 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국 내 동문 모임인 ‘한·미 비전협회’를 창립했다. 또 국립 대한민국관 건립위원장인 김 회우는 4월 16일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6층에서 열린 국립 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했다. 김 회우는 4월 19일에는 KBS 1TV 밤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길을 묻다’란 프로그램에 초청 연사로 나가 ‘지구촌 복합위기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란 주제로 강연했다.

### 소설가 신경숙씨 초청 강연



신경숙씨를 초청해 ‘신경숙의 문학 이야기’를 들었다.

###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에



★ 박 실 회우 = 4월 15일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



★ 박석흥 회우 = 4월 26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임기 2년의 조사·심의기구의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위원을 전보다 40명을 줄여 80명만의 위원을 위촉했다.

### 민족문제연구소에 공개 항변서



★ 서강화 회우 =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일보 방응모 선생이 기관총을 헌납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단순히 평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재평가해 달라고 공개항변서를 제출했다.

### 헌정회 편집위원장으로

★ 신경식 회우 = 4월 15일 대한민국



헌정회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됐다.

###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어경택 회우 = 2009년 동아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마라톤코스 42.195km를 14번째 완주했다. 어경택 회우의 이번 마라톤 완주 기록은 4시간 17분이다.

### 흡연예방교육 추진위원장에



★ 이광영(대한암협회 부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회우 = 3월 27일 대한암협회 2009년도 유아 및 초등생 흡연예방교육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뒤 4월 18일 경기고등학교에서 ‘과학과 삶’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경향신문 사우회 상임이사로



★ 이상호 회우 = 지난 4월 7일 경향신문 사우회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연락처 ; 02-735-5608

### 언론상 ‘한길상’ 수상



★ 조용종 회우 = 4월 5일 서울 언론인클럽(회장 강승훈 회우)이 수여하는 제 24회 서울 언론인클럽의 언론상인 ‘한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1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영연방 6·25참전 기념식



★ 지갑종(UN한국참전국협회 회장) 회우 = 영연방 4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6·25 참전용사 171명의 방한을 맞이하여 4월 17일과 18일 이틀동

안 옛 격전지 가평과 설마리에서 각각 참전기념식과 전몰자 추도식을 거행했다. 지 회우는 또 이들 참전용사가 제공한 장학금을 이 지역 109명의 중고생들에게 전달했다.

### 천주평화연합 공로상 수상



★ 최귀조(평화언론포럼 운영위원장) 본회 이사 = 4월 10일 충남 보령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열린 천주평화연합(UPF) 연대총회에서 평화세계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 본회 산악회 고문예



★ 최상목(사진좌), 최의호 회우 =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두 회우를 산악회 고문으로 추대했다.

### 헌정회 대변인으로 선임



★ 최재욱(13, 14대 국회의원) 회우 = 4월 15일 대한민국 헌정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 수필가로 등단



★ 한영탁(영덕신문 사장) 회우 = 수필 전문계간지 ‘에세이 21’의 추천으로 수필가로 등단했다. 한 회우는 지난 겨울호에 첫 회 추천을 받았고 올 여름호(5월호)에 두 번째 추천을 받아 수필가가 된 것이다.

### 한국일보 상임감사로 선임



★ 홍원기(본회 부회장) 회우 = 3월 30일 열린 한국일보 이사회에서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 종군기자 기념비 참배



본회 조창화 회장, 홍인기 부회장 등 전현직 기자 60여명은 4월 27일 문산을 통일공원 안에 있는 한국전 종군기자 기념비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종군기자 출신의 김진섭, 이혜복, 문제안, 한영섭, 계성일, 박영식, 지갑종, 최원각씨 등 본회 원로 회원 그리고 이재형, 박기병, 김영호, 정성진 회원 등이 참석했다.

## 제 120차 정기이사회

신입회우 가입 승인을 위한 제 120차 정기 이사회가 4월 21일 본회 사무실에서 회장단과 일반 이사, 감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전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회원으로 추천된 17명에 대한 회원 가입을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1분기 예산 집행 실적도 보고됐다.

### ◀ 회비납부(4월중) ▶

구건서, 구만완, 구본건, 김성수, 김양섭, 김호곤, 김흥기, 문준철, 민정기, 오근영, 유일연, 이구열, 이형균, 전신병, 전중열, 정두진, 정서구, 조덕일, 조성국, 최상목, 최선록, 현준건, 황대연(이상 2009년도 회비) 정두진(2008년도 회비) 박정순(대납자)

## ◀ 주 소 변 경 ▶

★ 김진기 회우 = 서울 도봉구 쌍문동 340-16 마래빌라트 4동 103호 우)132-880

★ 김진섭 회우 =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2 역촌맨션 A동 205호 우) 122-813 전화)02-356-2073

★ 오정수 회우 = 서울 마포구 성산동 466 월드컵 I-PARK 1차아파트 104-104 우)121-849

★ 이태자 회우 = 서울 강서구 등촌3동 부영아파트 104-1508 우)157-772

★ 현원복 회우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동 746-5 우)449-840

## ◀ e-mail 주 소 ▶

★ 박영식 회우=antonio2033@hanmail.net

## ◀ 전 화 번 호 변 경 ▶

★ 이상호 회우의 휴대전화 번호가 010-3855-8624로 변경됐다.

## ◀ 자 녀 결 혼 ▶

★ 황봉구 회우 = 장녀 하은 양의 결혼식이 5월 23일(토) 오후 7시 오펔리스 청담점에서 거행(02-518-2300).

## 회 우 별 세

★ 유창순(柳昌淳) 회우 = 4월 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1929년 생). 본회는 유족의 연락이 너무 늦은 관계로 언론인장으로 모시지 못하고 4월 5일(일요일) 아침 6시30분 평촌 한림성모병원에서 거행된 발인에 조창화 회장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은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됐다.

★ 전중열(全仲烈) 회우 = 4월 22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1929년 생). 유족들은 평소 고인이 번거로움을 피하는 성품을 받들어 언론인장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모셨다. 본회를 대표해 조창화 회장이 문상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전 회우는 특히 별세 며칠 전에 연회비와 특별발전기금 200,000원을 기탁했다.

★ 광노형 회우 = 4월 2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상배. 고인은 용인공원묘지에 안장.





언론, 언론인을 위한 러닝메이트 . \_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